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元稹·白居易 新樂府 特徵と 異質性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成 殷

2013年 2月

# 元稹·白居易 新樂府 特徵과 異質性 研究

指導教授 林 東 春

金 成 殷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13年 2月

金成殷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 < 目 次 >

第1章 序 論 .....	1
第1節 研究動機와 目的 .....	1
第2節 研究方法과 範圍 .....	3
第2章 時代的 背景과 元稹·白居易의 生涯 .....	5
第1節 時代的 背景 .....	5
1. 政治 經濟的 背景 .....	5
2. 文化的 背景 .....	7
第2節 元稹·白居易의 生涯 .....	9
1. 元稹의 生涯 .....	9
2. 白居易의 生涯 .....	11
第3章 元稹·白居易의 樂府詩 特徵 .....	15
第1節 元稹 樂府詩의 特徵 .....	16
1. 詩歌主張 ---- 形式의 重要性을 강조 .....	16
2. 詩歌體制의 變化 ----- 《新題樂府》에서 《樂府古題》로 .....	19
第2節 白居易 樂府詩의 特徵 .....	24
1. 詩歌主張 ---- 內容의 重要性을 강조 .....	24
2. 詩歌體制의 變化 ---- 《秦中吟》에서 《新樂府》로 .....	28
第3節 小結 .....	31

第4章 元稹·白居易 新樂府 異質性·····	34
第1節 同一 主題에서의 異論·····	34
1. 國家 興亡盛衰 ·····	34
2. 民衆들의 苦難 ·····	41
3. 窮兵黷武 ·····	50
4. 外來音樂의 盛行 ·····	56
第2節 主題의 獨創性 ·····	59
1. 政治的 失意 ---- 元稹·····	60
2. 高位層의 사치와 향락 ---- 白居易 ·····	61
3. 朝廷官吏의 職務遺棄 ---- 白居易 ·····	64
第 5章 結 論 ·····	66
參考文獻 ·····	69

## 第 1章 序 論

### 第 1節 研究動機와 目的

元稹과 白居易는 몰락한 하급관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향으로 학문에 힘써 科擧를 통해 함께 벼슬길에 올랐다. 그들은 함께 과거시험인 ‘才識兼茂明於體用科’를 준비하면서 當時 中唐社會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는 科擧예상문제집인 《策林》을 공동으로 저작하였고, 中唐 詩壇에서 함께 新樂府運動을 전개하고 수많은 唱和詩를 주고받는 등 오랜 교우로 인하여 그들은 生前에 이미 元白으로 竝稱되었었고, 또한 작품 風格이 유사하다는 연유로 그들의 시가 주장이나 작품에서의 이질성은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의 학자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陳寅恪의 ‘元稹의 《樂府古題》는 白居易 《新樂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1)</sup>라는 주장에 대하여 王錫九는 역대 평론가들의 말을 引用하여

元白은 문학창작에서 왕왕 元稹이 앞서고 白居易가 뒤처진다. 그러나 문학성취에 있어서는 白居易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 元稹의 新樂府 창작은 白居易보다 빠르다. 문학주장이 일치해도 시간상으로 元稹이 조금 앞선다.

(元白的文學創作，往往是元行之於前，白效之於後，而在成取上又遠遠超過元。……元的新樂府創作比白早，文學主張一致，時間上也比白早。)<sup>2)</sup>

라고 하여 元稹이 白居易의 영향을 받았다는 陳寅恪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또한 吳偉斌도 陳寅恪의 주장을 반박하여

1)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6. 重印. p.311. “고제약부19수는 몽상천에서 고객락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元稹이 白居易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凡古題樂府十九首, 自夢上天至估客樂……此則微之受樂天之影響。)

2) 王錫九, <關於元白文學成就和「新樂府運動的爭鳴」>, 杭州大學中文系, 語文學報, 1986. p.130.

그 둘은 서로 影響을 받은 것이지, 결코 元稹만 白居易에서 影響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元和 年間に 창작한 《新樂府》는 곧 元稹의 李紳에게 和答하면서 지은 《新題樂府》를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고, 白居易가 元和 10년에 쓴 <與元九書>도 元稹의 元和 8년에 지은 <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의 影響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他們之間的影響是相互的, 絕非只是白居易嚮影元稹。如元和年間的新樂府詩歌的創作, 卽是白居易受元稹酬和李紳之作的啓發而寫成的。白氏元和十年的《與元九書》, 又顯然是受元稹元和八年所作的《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的影響。)<sup>3)</sup>

라고 하여 상호 影響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元稹과 白居易의 樂府詩 창작 時期나 成就 면에서의 우열을 다룰 뿐 元稹과 白居易 新樂府의 특징과 작품의 同質性이나 異質性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두 시인의 詩歌 주장이나 작품에는 同質性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異質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元稹은 杜甫를 매우 推崇하여 杜甫의 詩에 대해서 “浩蕩함이 끝이 없이 곳곳에 이른다. (浩蕩津涯, 處處臻到。)”라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白居易는 “(杜甫의 시중에서) 風雅比興을 찾아보면,……‘크고 좋은 집에서는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 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있다.’라는 詩가 三四十首에 불과하다. (索其風雅比興,……‘朱門酒肉嗅, 路有凍死骨’之句, 亦不過三四十。)”<sup>4)</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失政의 原因에 대해서도 白居易는 皇帝가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元稹은 官吏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sup>5)</sup>고 보고 있기 때문에 白居易의 詩에서는 皇帝의 修身을 강조하는 작품이 많은 반면 元稹의 詩에서는 賢者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는 詩가 많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白居易는 유가의 전통사상인 ‘榮達하면 세상을 구제하고, 곤궁하면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 (達卽濟億兆, 窮卽獨善其身。)’<sup>6)</sup>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元稹은 ‘영달하면 세상을 구제하고, 곤궁하면 터럭만

3) 吳偉斌, <元稹評價縱覽>, 1988,5. 復旦大學學報, p.163.

4) 謝思煒撰, 《白居易文集》<與元九書>

5) 金卿東,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1996,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p.222, p.226.

6) 《孟子》<盡心·上>

큼이라도 남을 구제한다. (達卽濟億兆, 窮亦濟毫釐。)<sup>7)</sup>는 입장을 堅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皇帝가 자신들의 諫言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白居易는 外職을 自請하여 長安을 떠났지만, 元稹은 左遷되었어도 그 ‘窮亦濟毫釐’ 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sup>8)</sup> 또한 外來文化의 流入에 대해서도 白居易는 나라의 風潮가 잘못 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元稹은 兵亂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어, 이러한 인식은 결국 시가주장과 작품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본 論文은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 특징과 작품의 同質性보다는 서로 다른 詩歌 특징과 작품내용에서의 異論을 통하여 두 시인의 추구한 이상을 살펴보고 한다.

## 第 2節 研究 範圍와 方法

研究 範圍는 元稹은 冀勤點校, 《元稹集》上·下, (北京, 中華書局, 2010, 7.)를 저본으로 하여 《和李校書新題樂府》12首 중 <上陽白髮人> · <華原磬> · <五弦彈> · <法曲> · <立部伎> · <蠻子朝> · <胡旋女> · <縛戎人> · <西涼伎>와 《樂府古題》19首의 <採珠行> · <織婦詞> · <田家詞> · <捉捕歌> · <出門行> · <苦樂相倚曲> · <冬白紵> · <夫遠征>을, 그 밖에 <連昌宮詞> · <叙詩寄樂天書> · <進詩狀> · <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 · <上令狐相公詩啓> · <樂府古題序> · <同州刺史謝上表> 등 24篇이고,

白居易는 謝思煒撰, 《白居易詩集校注》全六卷, (北京, 中華書局, 2009.)과 謝思煒校注, 《白居易文集校注》全四卷, (北京, 中華書局, 2011.)을 저본으로 하여 《白居易詩集校注》에서 <道州民> · <牡丹芳> · <七德舞> · <海漫漫> · <八駿圖> · <杜陵叟> · <捕蝗> · <縛戎人> · <紅線毯> · <杏爲梁> · <賣炭翁> · <立部伎> · <西涼伎> · <隋堤柳> · <司天臺> · <紫毫筆> · <新豐折臂翁>과 《秦中吟》10首<sup>9)</sup> 중에서는 <重賦> · <輕肥> · <五絃> · <歌舞> · <傷宅> · <買花>를, 그 밖에 <新樂府并序> · <采詩官> · <寄唐生> · <傷唐衢> · <問楊瓊>과 《白

7) 《元稹集》<酬別致用>

8) 元稹은 자신의 詩 <出門行>에서 華氏之璧의 古事에 기탁하여 황제가 다시 자기를 重用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9) 胡適, 《白話文學史》, 北京, 團結出版社, 2005, 11. p.367. “白居易의 《秦中吟》은 모두 新樂府라고 할 수 있다.” (白氏의 《秦中吟》諸篇, 都可說是新樂府.)

居易文集校注》에 들어있는 《策林》·〈與元九書〉등 30편을 연구 범위로 한다.

生涯는 元稹에 대해서는 吳偉斌, 《元稹評傳》(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8.)을 참고하고, 白居易에 대해서는 遠行霏, 《中國文學史綱要》(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86.)를 底本으로 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張基權, 《白樂天》(明文堂, 2002.) 및 金在乘, 《白樂天詩研究》(明文堂, 1991.)를 참고하였다.

기타 본 논문의 論證은 陳寅恪, 《元白詩箋證稿》(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重印.)과 胡適, 《白話文學史》(北京, 團結出版社, 2005, 11.)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랐으며 또한 본 論文에 인용된 原典 《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 <http://osmstar.com.ne.kr/index.html> (오세주의 한시감상실)에서 인용했다.

研究 방법은 2章에서는 당시 혼란한 정국을 틈타 변방장수들의 할거하고, 환관들의 발호와 문벌과 서족출신간의 권력투쟁과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小農 경제가 몰락하는 등, 정치·경제적 배경과 속문학의 발달과 고문운동 같은 문학배경이 신악부운동의 제창자인 두 시인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 戰亂으로 인하여 타향으로 떠돌아 다녔던 두 시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과 관리가 된 후에 입신과 좌천을 통하여 新樂府가 출현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려고 한다. 3章에서는 두 시인의 서로 다른 詩歌 주장과 작품의 서술 방식을 통하여 두 시인의 新樂府에서 주장하는 시가형식과 내용의 특징과 그들의 시를 주고받으면서 詩歌體制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4章에서는 그들의 新樂府 작품에서 동일 주제인 국가의 흥망성쇠·민중들의 고난·궁병독무·외래음악의 성행에서 드러나는 현실인식의 차이점과 주제가 獨創적인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詩를 翻譯하는데 있어서는 金喆洙의 “漢詩는 주지하다시피 定型詩이므로 翻譯된 詩도 가급적 글자 數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sup>10)</sup>란 의견에 따라 작가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글자 數를 맞추어 번역하였다.

---

10) 金喆洙, 《白居易의 新樂府 50首와 秦中吟 10首, 中唐社會를 비추다》, 白山出版社, 2007.5. p.5.

## 第2章 時代的 背景과 元稹 · 白居易의 生涯

### 第1節 時代的 背景

#### 1. 政治 經濟的 背景

新樂府運動은 貞元 · 元和 年間的 특정시대 조건에서 일어난 運動으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安史의 亂은 平定되었지만 吐蕃이 자주 침략하는 등 邊방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틈타 節度使들이 邊방을 割據하여 군대를 확충하거나 조세와 형벌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와 同時에 宦官들의 전횡과 중앙관리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대립 또한 尖銳했다.

中唐의 肅宗 · 代宗 · 德宗 세 皇帝는 歷史上 가장 어리석은 皇帝로 유명하다. 그들은 道士와 女巫를 맹목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煉丹을 복용해 神仙이 되어 不老長生하는 헛된 망상에 빠졌으며, 무당에게 나라의 政事를 맡기는 등 國政을 모두 宦官과 ‘寵愛하는 臣下에게 맡겼다.’<sup>11)</sup> 國策을 제정하거나 신하들의 논공행상, 宰相의 임명과 해임, 皇帝의 폐위와 즉위까지도 모두 宦官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宦官들은 監官들에게 뇌물을 받아 官職과 작위를 팔았고 백성들의 토지와 재물을 강탈하고, 藩鎮들과 結탁하여 兵亂을 부추기고, 배제와 모함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 있는 將軍과 朝廷의 臣下들까지 살해하였다.<sup>12)</sup> 朝廷 안에서는 宦官이 中央禁軍을 모두 장악하고 아울러 邊방장군들에 대한 監察權(監軍)까지 손에 쥐어 각지에 宦官을 파견하여 軍隊를 監督하게 하였고 朝廷 밖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어가 豪族과 庶民들 사이

11) 《舊唐書 卷15, 本紀 15, 憲宗 下》 덕종 재위 시에 재상에게 국정을 맡기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두 스스로 결정하자 간신들이 특히 배연령의 무리들의 뇌물을 받고 재상을 두어야한다고 상소하였다.……원화 연간에 이르러 국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이 전부 재상에게 돌아갔다. (德宗不委政宰相, 人間細務, 多自臨決, 奸佞之臣, 如裴延齡輩數人, 得以錢穀數術進, 宰相備位而已.……訖於元和, 軍國樞機, 盡歸之于宰相.)

12) 《舊唐書 卷19, 本紀 18, 武宗 上》 구사량이 선소원부사위 지장을 체포하여 죽이고, 그 가족을 몰살했다. (仇士良收捕仙韶院副使尉遲璋殺之, 屠其家.)

에 貧富의 차이가 매우 심화되는 등 사회 각 방면의 모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官吏 중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政治改革<sup>13)</sup>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唐 王朝가 중흥하기를 갈망했지만 환관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하고 만다.

중앙 정치에서도 한빈 출신과 문벌 출신인 관리들의 정치투쟁인 牛李黨爭<sup>14)</sup>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백거이는 <澗底松>이라는 시를 지어 寒貧 출신인 관리들을 위로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종 정치적 폐단에 대해 元稹과 白居易는 詩歌와 上疏로써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當權者들의 눈 밖에 나 좌천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安史의 亂 이후에 對外전쟁을 치르느라 막대한 軍費를 쓰다 보니 元和 年間에는 天寶 年間보다 75%以上 稅收가 감소하고 軍人은 도리어 33%가 늘었다. 대략 두 사람이 세금을 내어 한 명의 軍人을 먹여 살렸다. 당시 국가의 兵力은 80여 만이었고, ‘官吏 · 商人 · 僧侶와 道士처럼 農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sup>15)</sup>이 인구 열 명 당 대여섯 명에 달하여 세 사람의 농부가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일곱 명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는 착취는 小農의 경제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민중들의 고통이 極에 달했다.”<sup>16)</sup> 그 시기에 邊方은 거의 삼분의 일이 대치상태에 속하여 黃河 유역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다보니 朝廷은 하는 수 없이 東南 · 江淮 지역에 의지하여 財政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江南은 자연히 세금을 착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두 시인은 詩歌로써 하층 민중들을 위로하고 탐관오리들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13) 順宗 때 발생한 永貞革新을 말함. 王叔文, 王伾 등이 주도 했으나 실패함. 《資治通鑑》卷二二六, 唐紀五十二에 나옴.

14) 寒貧 出身인 牛僧孺 · 李宗閔 등이 門閥出身인 李吉甫 등과 벌인 黨爭. 약 40년간 지속되었음.

15) 《舊唐書》卷122, 列傳 68, 楊炎 “대개 잘사는 집에는 장정들이 많으나 모두 관리거나 중이어서 모든 역을 면제받는다. (凡富人多丁, 率爲官爲僧, 以色役免.)

16) 鍾優民 《新樂府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p.7에서 인용

## 2. 文化 思想的 背景

唐代的 경제발달과 상업도시의 번영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견실한 초석이 되어 변방민족과 주변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 융합된 문화적 성과는 唐代 문학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지만,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모순은 당시 지식인들로 하여금 復古主義를 주장하게 하였고, 두 시인 또한 詩歌로써 華夷觀을 주장하게 하였다.

貞元에서 元和 年間(780~820)까지는 唐나라가 安史의 亂을 겪고 나서 衰落하여 갈 때 잠시 中興의 기회를 맞은 시기<sup>17)</sup>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고 경제가 날로 호전되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儒學은 재차 발전하였다. 나아가 中國文學史上 가장 유명한 兩大 文學革新運動인 古文運動과 新樂府運動이 일어났다.

이 양대 운동이 일어나기 전 當代 문단의 풍조에 대해서 金學主는 그의 저서 《中國文學概論》에서

“後漢부터 魏晉南北朝를 거쳐 初唐에 이르는 시대는 문장의 성물과 형식 및 사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唯美主義적인 시대였다. 그 결과 詩에서는 近體詩를 이루었고 散文에 있어서는 駢儷文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문장의 실용성은 외면한 귀족취미적인 문학사조였다.”<sup>18)</sup>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에 白居易 · 元稹 · 韓愈 · 柳宗元 등은 문학혁신 운동<sup>19)</sup>을 제창하면서 當時 문단에 만연한 虛美之風을 배척하고 《詩經》과 漢樂府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新樂府運動家들은 詩歌 창작에 있어서 風雪이나 花草만을 노래하는 當時의 詩歌 풍조를 개탄하고 詩歌는 일에 맞게 지어야한다 (歌詩合爲事而作)<sup>20)</sup>고 주장하였고, 古文運動家들은

17) 《元稹集》〈和李校書新題樂府12首并序〉 “나는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훌륭한 임금을 만나 ……”(予遭理世而君盛聖。……)

18)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2007. p.166에서 인용

19) 胡適, 《白話文學史》, 北京, 團結出版社, 2005. p.345. “이 문학혁신운동의 영수는 백거이와 원진이며 그들의 동지로는 장적 · 유우석 · 이신 · 이여 · 유맹 등이 있다. 그들은 단지 운문방면의 혁신운동 뿐만 아니라 산문방면에서도 백거이와 원진은 의도적으로 개혁을 한 적이 있고, 같은 시기의 한유 · 유종원은 모두 산문개혁의 동지이다.” (這箇文學革新運動的領袖是白居易與元稹, 他們的同志有張籍、劉禹錫、李紳、李余、劉猛等。他們不但在韻文方面做革新運動, 在散文方面, 白居易與元稹也曾做一番有意的改革, 與同時的韓愈、柳宗元都是散文改革的同志。)

문장에 있어서 魏晉 이래 화려하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駢儷文과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을 반대하며 韓愈는 문장에는 道가 실려야한다는 文以載道를 주장하였고, 柳宗元의 문장이란 道를 밝히는 것이라는 文以明道를 제창하였다. 또한 각종 종교와 사상이 허용되고, 講唱體의 변문(變文)과 傳記小說 같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俗文學이 발달은 두 시인으로 하여금 대중적인 언어로 시를 창작할 것을 주장하게 하였다.

어떠한 文學運動이 출현하려면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이 좋은 예술 환경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新樂府運動은 바로 사상이 비교적 개방되어 문화예술이 풍부하고 다채롭고 또한 古文運動과 俗文學이 때맞추어 일어나는 문화적 분위기와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일어나고 발전했다.

---

20) 謝思煒校注, 《白居易文集》〈與元九書〉

## 第2節 元稹 · 白居易의 生涯

### 1. 元稹의 生涯

元稹 (779~831)의 字는 微之 또는 威明이라고 하며 行렬이 9번째여서 元九라고도 부른다. 그는 <同州刺史謝上表>에서 스스로

제가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집이 가난하여 부쳐 먹을 땅도 없어서 어머니와 형이 구걸하여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지 못했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께서 배울 줄 못해 늘 시골 애송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 애들은 학교에 다니니 울다 목이 메어 화가나 《詩經》과 《書經》을 배우기로 맘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직접 《詩經》과 《書經》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臣八歲喪父，家貧無業，母兄乞丐以共資養，衣不布體，食不充腸。幼學之年，不蒙師訓，因感鄉里兒稚，有父兄爲開學校，涕咽發憤，願知詩書。慈母哀臣，親爲教授。)21)

라고 밝히고 있고, 또 《舊唐書 · 元稹傳》에도

元稹이 여덟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元稹이 어머니는 鄭씨 夫人인데 賢明한 여자였다. 집이 가난하여 元稹에게 직접 글과 서예를 가르쳤다.

(稹八歲喪父，其母鄭夫人，賢明婦人也。家貧，爲稹自授書，教之書學。)22)

라는 기록으로 보아 어릴 때 집이 가난하여 서당에 다닐 형편이 못되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元稹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中國文學史에서 매우

21) 冀勤點校,《元稹集》上 <同州刺史謝上表>

22) 《舊唐書》卷 170, 列傳 116. 元稹傳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大詩人이 될 수 있었다.

아버지의 三年喪이 끝나자 10살의 어린 元稹은 어머니와 두 살 위인 형 元稹과 함께 부득이 長安을 떠나 西北 邊方 지역인 鳳翔으로 가 외삼촌과 큰누나에게 의지하여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元稹은 나중에 그곳에서 변방장수들이 잃어버린 국토는 수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향락에 빠져있는 것과 변방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을 직접 목격한 것을 회상하여 <西涼伎><sup>23)</sup>· <縛戎人> 등을 지어 변방장수들의 荒淫無道와 貪功要寵을 비난하였다.

貞元 19년(803) 봄에 吏部 乙科에 합격하여 秘書省校書郎이라는 官職을 얻게 되는데 이때 平生 同志가 된 白居易도 함께 합격하여 처음 서로 만나게 된다.<sup>24)</sup>

元和 元年(806) 初 白居易와 함께 校書郎職을 버리고 制科考試에 함께 應試하기로 약속하고 이때 華陽觀에서 과거시험 예상문답집인 《策林》을 白居易와 共同으로 집필하고, 그해 4월 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壯元及第하여 左拾遺에 任命된다. 그해 8월 憲宗의 특별지시로 延英殿에서 ‘召見問狀’할 때 皇帝의 면전에서 재상 杜佑를 狐狸에 비유하는 등 거리낌 없이 소견을 털어 놓아 재상 杜佑를 궁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화가 난 杜佑는 元稹에게 불만이 있는 관리들과 함께 사리사육에 눈이 먼 憲宗의 목인 하에 9월 河南尉로 좌천시킨다.<sup>25)</sup>

元和 2년(807)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官職을 그만두고 三年守喪을 하면서 대부분 朝廷의 문제점을 지적한 《和李校書新題樂府》 12首를 지어 朝廷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元和 5년(810) 浙西觀察使 韓臯가 安吉縣令 孫澥를 아무런 까닭 없이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때려죽인 사실을 알고 탄핵하는<sup>26)</sup> 등 元稹은 洛陽에서 재임 기간 중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함으로써 朝廷의 權臣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또한 河南尹 房式의 죄를 묻는 과정에서 朝廷의 비준을 받기 전에 독

23) 陳寅恪은 그의 저서 《元白詩箋證稿》에서 元稹의 《新題樂府》 <西涼伎>가 이때를 회상하여 지은 것이라 하였다.

24) 白居易 <代書詩一百韻寄微之>, 自云, “정원 연간에 원진과 함께 급제한 후 같이 비서성교서랑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貞元中, 與微之同登科第, 俱授秘書省校書郎, 始相識也.)

25) 《舊唐書》卷 170, 列傳 116. 元稹傳 원화 초 …… 황제께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 원진을 직접 불러 물어 보는데 재상 두우가 크게 당황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못되어서 하남위로 쫓겨났다. (元和初, …… 上頗悟, 召見問狀. 宰相大怒之, 不一月, 出爲河南尉.)

26) 《舊唐書》卷 170, 列傳 116. 元稹傳 절서관찰사가 안길현령을 몽둥이로 때려 죽임에 이르게 하였다. (浙西觀察使封杖決安吉令至死.)

단적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빌미로 長安으로 소환되어<sup>27)</sup> 長安으로 돌아오는 중 敷水驛에서 환관우두머리인 仇士良과 방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당시 규정에 따르면 御使와 宦官이 같이 驛站에 투숙하게 되면 먼저 도착하는 쪽이 上廳을 사용하고 나중에 도착한 쪽은 別廳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관 劉士元이 이러한 관례를 알고 있음에도 朝廷官吏인 元稹을 매질하였다.<sup>28)</sup>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元稹이 江陵府 士曹參軍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江陵·唐州·通州·虢州 등지에서 10년 정도 꺾적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하층 민중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서 《和李校書新題樂府》12首와는 다른 <採珠行>·<織婦詞>·<田家詞>와 같은 민중들의 고통을 읊은 詩가 들어있는 《樂府古題》19首를 지었다.

## 2. 白居易의 生涯

白居易 (772~846)의 字는 樂天이고 晚號는 香山居士 또는 醉吟先生이다. 下邳(지금 陝西, 渭南縣)사람으로 중국문학사상 크게 이름을 떨친 시인이자 문학가이다.

白居易의 생애는 보통 둘로 나누는데 그가 44세 때 江州司馬로 꺾적된 것을 기준으로 前期를 ‘兼濟天下’ 時期라고 하고 後期를 ‘獨善其身’ 時期로 분류한다.

그는 河南 新鄭縣의 하급관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2살 때 河南 일대에서 朱泚·李希烈 등 藩鎮들의 반란을 일으키자<sup>29)</sup> 越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徐州·襄陽 等地로 옮겨 사는 등 고단한 생활을 겪었다. 그의 청소년 시기를 반영한 <自河南經亂關內阻飢兄弟離散各在一處因望月有感聊書所懷寄上浮梁大兄於潛七兄烏江十五兄兼示符離及下邳弟妹>(河南에 난리가 나자 먹을 게 없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있는 곳에서 보름달을 보니 울컥한 마음이 들어 시를 지어 浮

27)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元稹傳》河南尹 방식의 비리 사건을 적발하여 그것을 상주하였다. (會河南尹房式詐訟事發, 奏攝之。)

28) 《新唐書 卷 187, 列傳 99. 元稹傳》부수역에 환관 구사량이 밤에 도착했다. 원진이 상청을 양보하지 않자, 환관이 화가나 원진의 얼굴을 때렸다. (次敷水驛, 中人仇士良夜至, 稹不讓, 中人怒, 擊稹敗面。)

29) 《舊唐書 卷 12, 本紀 12. 德宗》이회열이 스스로 천하도원수, 태위, 건흥왕이라 칭하고, 주도 등 네 명의 도적들이 단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李希烈自稱天下都元帥、太尉、建興王。與硃滔等四盜膠固為逆。)

梁에 계신 큰 형과 於潛에 있는 일곱 번째 형, 烏江에 있는 열다섯 번째 형에게 보내며 아울러 符離 및 下邳에 있는 妹弟에게)란 긴 題目의 詩에서

時難年饑世業空,	전쟁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家業이 망쳐,
弟兄羈旅各西東。	형제들은 나그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네.
田園寥落干戈後,	전쟁이 막 끝난 후라 논과 밭이 황폐하고,
骨肉流離道路中。	식구들은 길에서 이리저리 流浪하는구나.
弔影分爲千里鴈,	몸과 그림자가 나뉘어 千里 기러기 되고,
辭根散作九秋蓬。	뿌리가 잘려 둥구는 가을 쭉처럼 되었네.
共看明月應垂淚,	밝은 달 함께 보며 당연히 눈물 흘리리니,
一夜鄉心五處同。	이 밤 고향 생각 다섯 곳에서 똑 같겠지.

하여 이 時期 생활이 그에게는 사회적 危機感과 백성들의 고통을 깨달게 해주었고, 현실적인 태도와 강직한 성격을 배양하여 이른바 현실주의적 사고를 갖게 하였다.

德宗 貞元 16년 (800) 29세에 進士科에 합격하여 32세에 元稹과 함께 校書郎에 任命되었으나 憲宗 元和 元年 (806) 35세에 校書郎을 그만 두고 ‘才識兼茂明於體用科’를 준비한다. 이때 元稹과 함께 과거시험 豫想問答集인 《策林》을 쓴다. 이 《策林》에서 그는 下層民衆의 입장에서 당시 政治·經濟·軍事·文化에 대하여 매우 進步的인 주장을 펼쳤는데 그 核心은 바로 儒家의 백성이 根本이 되는 仁政思想이다. 여기에서 그는 皇帝께서 ‘天下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以天下心爲心; ……以百姓欲爲欲。)을 바랐다.’<sup>30)</sup>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다음 정치 행위로 삼아야 한다(其 69項)는 것은 그의 정치 활동과 詩歌 창작의 강령이 되었다. 이 해 4월 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응시하여 4등으로 합격하여 周至縣尉에 임명되었다.<sup>31)</sup> 그곳에서 《觀刈麥》과 《長恨歌》를 지어 창작의 進步 경향과 탁월한 예술재능을 드러냈다.

30) 謝思煒撰, 《白居易文集》《策林, 7·不勞而理》

31)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白居易傳》元和元年四月, 憲宗策試製舉人, 應才識兼茂明於體用科, 策入第四等, 授盩厔縣尉、集賢校理。

元和 3년 (808) 5월 左拾遺에 임명되었는데 諫官이 되자 재해를 입은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것과 宮女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줄 것, 그리고 河北 藩鎮에 병사들을 보내는 것을 중지해 달라는 등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과 王鏐이 뇌물을 주어 宰相자리를 탐내자 즉각 上疏를 올려 반대하는 등 諫官으로서 책무를 다 하였다. 《新唐書·白居易傳》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皇帝께서 河東 王鏐을 平章事(宰相)로 임명하려고 하자, 白居易가 간언하기를 ‘宰相은 폐해를 보좌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賢良한 신하가 아니고서는 宰相자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王鏐은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그것으로 聖恩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온 나라에 있는 節度使들의 陛下께서 王鏐에게 進奉을 받고 그에게 宰相자리를 주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聖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하니 任命하지 않았다.

「上又欲加河東王鏐平章事，居易諫曰‘宰相是陛下輔臣，非賢良不可當此位。鏐誅剝民財，以市恩澤，不可使四方之人謂陛下得王鏐進奉，而與之宰相，深無益於聖朝。’乃止。」<sup>32)</sup>

라고 나와 있어 백거이의 상소로 결국 王鏐의 야심은 좌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元稹의 좌천이 잘못되었다고 상소를 올리는<sup>33)</sup> 등 고위 관리나 환관에게도 거침없는 투쟁을 벌였다. 하루는 皇帝를 面前에서 질책하자 皇帝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李絳에게 “白居易 이 새끼는 내가 발탁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 내가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白居易小子，是朕拔擢致名位，而無禮於朕，朕實難奈。)”<sup>34)</sup>면서 과면하려 하자 李絳이 말려 과면을 모면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던 후 白居易는 皇帝가 더 이상 자기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閒職인 京兆府戶曹參軍職을 自願한다.

이 3년간의 諫官 생활은 白居易로 하여금 사회와 정치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식을 하게 하였고, 특히 통치 집단의 상층부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또한 直言諫爭 외에도 동시에 많은 詩를 지어 자기의 정치투쟁 도구

32)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白居易傳》

33) 謝思煒撰, 《白居易文集校注》〈論元稹·監察御史元稹貶江陵府士曹參軍〉 “원진이 관청을 지킨 것이 옳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元稹守官正直, 人所共知。)

34)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白居易傳》

로 삼았다. 元和 6년 (811) 4월부터 元和 9년 (814) 겨울까지 白居易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下邳 渭村에서 살면서 農民들과의 往來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808~814)이 그의 詩歌 창작의 황금기로 《秦中吟》 10首와 《新樂府》 50首가 대부분 이때에 쓰여 졌다.

元和 10년 (815) 宰相 武元衡을 죽인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上疏를 재빨리 올렸다가 諫官도 아닌 주제에 먼저 上疏를 올렸다고 미움을 받아,<sup>35)</sup> 어머니가 꽃을 구경하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賞花>와 <新井>이라는 시를 지어서 名教를 해쳤다<sup>36)</sup>고 하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아 江州司馬로 좌천된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兼濟天下에서 獨善其身으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秦中吟》이나 《新樂府》와 같은 諷諭詩를 짓지 않았고, <琵琶行>과 같은 감상시를 지었다.

---

35)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白居易傳) 재상 무원형이 암살되자 백거이는 가장 먼저 상소를 올려 범인을 잡아 나라의 수치를 설욕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재상은 조정의 관리인데 간관도 아닌 주제에 부당하게 간관보다 먼저 말을 했다. (盜殺宰相武元衡, 居易首上疏論其冤, 急請捕賊以雪國恥. 宰相以宮官非諫職, 不當先諫官言事.)

36) 《舊唐書》 卷 170, 列傳 116. 白居易傳) 평소 백거이를 싫어하는 자들의 트집을 잡아 백거이는 말만 번지르르하지 행실이 좋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가 꽃을 구경하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賞花>와 <新井>이란 시를 지어 명교를 심하게 해쳤다. (會有素惡居易者, 掩撫居易, 言浮華無行, 其母因看花墮井而死, 而居易作《賞花》及《新井》詩, 甚傷名教.)

### 第3章 元稹 · 白居易의 新樂府 特徵

新樂府運動이 세차게 일어나기 前 中唐 詩壇은 虛美文風이 한동안 성행하여 詩歌 창작은 이상을 추구할 뿐 심각한 사회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 어떤 것은 風花雪月の 작품<sup>37)</sup>만 쓰거나, 어떤 것은 太平聖代를 노래하여 현실을 꾸미는 데만 급급하여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貞元 末年(804)까지 수십 년이 흐르도록 변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安史의 亂 후 사회갈등은 전에 없이 첨예하고 복잡하여 시인들은 詩歌로 政治를 비판하고 現實을 반영하는 곧 虛美文風을 배척하는 운동이 점점 진보적인 시인들에 의해 詩壇에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新樂府運動의 領袖인 元稹과 白居易는 新樂府 창작을 통하여 백성들의 입장을 동정하고, 朝廷의 부패와 환관의 跋扈하는 봉건전제통치를 비판하며 정치개혁을 통하여 唐나라가 중흥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儒學 詩歌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만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詩歌가 政敎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樂府詩의 음악성을 버리고 諷諭性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樂府詩를 현실을 비판하는 諷諭詩로 변하게 하였다.

元稹과 白居易는 또한 詩歌의 效率性을 강조하여 《策林》에서

聖王께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스림의 근본을 세울 수 있고, 敎化의 根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라 風俗의 盛衰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고, 王政의 得失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聖王酌人之言, 補己之過, 所以立理本、導化源也。……國風之盛衰, 由斯而見也。王政之得失, 由斯而聞也。人情之哀樂, 由斯而知也。)<sup>38)</sup>

37) 謝思煒撰, 《白居易文集》〈與元九書〉 “양나라와 진나라에 이르러 거의 風雪과 花草를 노래하는 것뿐이다.” (至於梁陳間, 率不過嘲風雪, 弄花草而已。)

38) 謝思煒撰, 《白居易文集》《策林, 69 · 採詩》

하여 詩歌의 중요성과 採詩管 制도의 復活을 주장하면서 詩歌로써 정치가 잘못 되면 바로 잡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儒學의 전통적인 詩學觀을 주장하여 詩歌가 현실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두 시인의 新樂府 특징을 보면 詩歌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詩歌 형식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第1節 元稹 新樂府 特徵

### 1. 詩歌主張 - 形式의 중요성을 강조

元稹은 《樂府古題》19首의 序文에서

하물며 《風》·《雅》에서 樂府에 이르기까지 當時의 일을 풍자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 古題를 따르고 唱和가 중복되니, 文章에 長短은 있을 지라도 뜻에는 군더더기만 있다. 오히려 古題에 뜻을 寄託하여 일에 따라 풍자하고 찬미하는 것만 못하다. …… 近代에 들어서서는 오로지 杜甫의 <悲陳陶>·<哀江頭>·<兵車>·<麗人> 등, 모든 歌行이 모두 卽事名篇 無復倚傍 (일에 따라 제목을 지어 더 이상 옛 제목을 흉내 내어 짓지 않았다.)의 작품이다. 내가 젊었을 적에, 친구인 樂天·李公垂 등과 더불어 그것이 옳다 하여 더 이상 古題를 흉내 내어 詩를 짓지 않았다.

(況自《風》、《雅》，至於樂流，莫非諷興當時之事，以貽後代之人。沿襲古題，唱和重複，於文或有長短，於義咸有贅贅。尚不如寓意古題，刺美見事，……近代唯詩人杜甫《悲陳陶》、《哀江頭》、《兵車》、《麗人》等 凡所歌行，率皆卽事名篇，無復倚傍。予少時與友人樂天、李公垂輩，謂是爲當，遂不復擬賦古題。)39)

라고 하여 當時 詩壇의 막연하게 古題를 모방하여 詩를 짓는 풍조를 배척하고, 일에 따라 제목을 정할 것(卽事名篇)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詩를 모방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

39) 冀勤點校,《元稹集》上 <樂府古題序>

기의 詩를 답습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그는 白居易와 많은 唱和詩를 지어 그 이름을 元和詩體라 하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것을 흉내 내어 唱和詩를 지었다.

이러한 풍조에 대해 元稹은

“江湖에 많은 新進 후배들이 글에 宗主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模倣하면서 따라 쓰다 보니 宗主를 놓치고 마침내 지리멸렬하여 천박함을 드러내는 글이 되었는데도 모두 題目을 元和詩體라고 하였다.”

(江湖間多新進小生, 不知天下文有宗主, 妄相倣倣, 而又從而失之, 遂至於支離褊淺之詞, 皆目爲元和詩體。)40)

라고 하면서 당시의 무덕태고 남의 글을 따라(妄相倣效)쓰는 詩風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古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反對하지 않았다.

어제 梁主에서 進士 劉猛과 李餘가 각자 지은 古樂府詩 數十篇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열에서 스무 篇의 詩에 모두 새로운 의미가 들어있어, 내가 그것을 골라 和答詩를 지었다. 그 詩들은 비록 古題를 사용하고 있지만 古意는 조금도 없는 것으로서 例를 들어 <出門行>은 이별을 말하지 않았고 <將進酒>는 列女之類를 특별히 쓴 것이다. 혹 古意와 매우 닮았으나, 모두 새로운 글인 것은 바로 軍糧미 보내는 것을 서술하는데 그친 <田家詞>와 먼저 땅강아지와 개미 같은 놈들을 말한 <捉捕歌>이다.

(昨梁州見進士劉猛、李餘各賦古樂府詩數十首, 其中一二十章, 咸有新意, 予因選而和之。其有雖用古題, 全無古意者, 若《出門行》不言離別, 《將進酒》特書列女之類是也。其或頗同古意, 全創新詞者, 則《田家》止述軍輸、《捉捕》詞先螻蟻之類是也。)41)

하여 古題를 사용하더라도 古意가 없어야하고, 혹은 古意가 있는 듯 보여도 내용

40) 冀勤點校, 《元稹集》下 <上令狐相公詩啓>

41) 冀勤點校, 《元稹集》上 <樂府古題序>

이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詩歌 創作에서 新題이거나 古題이거나 공통된 요구는 創新이다. 시를 짓는데 새로운 題材를 선택하고, 새로운 체재를 만들어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元稹은 시에는 寄興<sup>42)</sup>이 있을 것을 강조하여 그가 스스로 지은 雜詩 十卷을 설명하는 가운데 六義<sup>43)</sup> 중에서도 빗대서 말하는 寄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기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古風詩에서 古今樂府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寄興이 있고, 노래에 가까우면 비록 작가의 풍격이 없고 조잡하여도 適人<sup>44)</sup>이 채집하는데 대강 맞는다. 律詩百韻에서 兩韻七言까지, 어떤 것은 친구와 재미삼아 지은 것이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기쁨을 나타낸 것이어서 이미 六義가 없는데, 한꺼번에 다 내놓고 보니 詞의 뜻이 번잡하고 어지럽기만 하여 매우 부끄럽고 황송하다.

(自古風詩至古今樂府, 稍存寄興, 頗近諷謠, 雖無作者之風, 粗中適人之採. 自律詩百韻, 至兩韻七言, 或因朋友戲投, 或以悲歎自遣, 既無六義, 皆出一時, 詞旨繁蕪, 倍增慚恐。)<sup>45)</sup>

하여 본인의 詩에서도 寄興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 元稹은 寄興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하는 데도 적용하고 있어

마침 어떤 사람이 陳子昂의 <感遇詩>를 보여줘 그것을 격렬하게 읊조리다가 그 날로 <寄思玄子>詩 二十 首를 지었다. ……또 오랜 후에 杜甫의 詩 數百 首를 얻어 읽으니, 그 浩蕩함이 끝이 없이 곳곳에 이르고 있음을 좋아하게 되었고, 비로소 沈佺期和 宋之問의 詩에는 寄興이 없음이 탈이고, 陳子昂의 詩는 두루 갖출 겨를이 없었음(夭折)을 아쉬워했다.

(適有人以陳子昂感遇詩相示, 吟翫激烈, 卽日爲寄思玄子詩二十。……又久之, 得杜甫詩數百首, 愛其浩蕩津涯, 處處臻到, 始病沈、宋之不存寄興, 而訝子昂之未暇旁備矣。)<sup>46)</sup>

42) 【寄興】: 예술작품의 깊은 寓意를 가리킴.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43) 六義: 《詩經》의 六體의 분류. 풍(風)·아(雅)·송(頌)·부(賦)·비(比)·흥(興).

44) 【適人】: 고대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파견한 사신.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45) 冀勤點校, 《元稹集》上 <進詩狀>

하여 沈佺期和 宋之問의 詩에 寄興이 없음을 비난하고, 杜甫와 陳子昂의 詩에는 寄興이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 2. 詩歌體制의 변화 - 《新題樂府》에서 《樂府古題》로

元稹의 樂府詩의 또 하나의 특징은 元和 4년에 지은 《和李校書新題樂府》12首와 8년이 지난 元和 12년에 지은 《樂府古題》19首의 시가체제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陳寅恪은 元稹의 《和李校書新題樂府》12首를 평가하기를

元稹이 지은 新題樂府가 白居易보다 못한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 작품에 여러 意味가 內包되어 있어, 즉 詞義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늘어놓아 종종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意向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집중하는데 어려움에 유의해야한다.……

(微之賦新題樂府, 其不及樂天之處有二 : (一)爲一題涵括數意, 則不獨詞義複雜, 不甚清切, 而且數意竝陳, 往往使讀者不能知其專主之旨, 注意遂難於集中。……)47)

라고 하여, 한 작품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보니 宗旨가 명확하지 않아 主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元稹의 《和李校書新題樂府》12首에 들어있는〈上陽白髮人〉을 보면

上陽白髮人	上陽宮의 늙은 宮女
天寶年中花鳥使,	天寶 年間に 宮女를 모집하는 花鳥使들이,
撩花狎鳥含春思。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봄날 마음을 머금어.
滿懷墨詔求嬪御,	皇帝의 密書를 가슴에 품고 妃嬪을 구하러,

46) 冀勤點校, 《元稹集》上 <叙詩寄樂天書>

47)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6. 重印. p.310.

走上高樓半酣醉。  
 醉酣直入卿士家，  
 閨闈不得偷迴避。  
 良人顧妾心死別，  
 小女呼爺血垂淚。  
 十中有一得更衣，  
 永醉深宮作宮婢。  
 御馬南奔胡馬蹙，  
 宮女三千合宮棄。  
 宮門一閉不復開，  
 上陽花草青苔地。  
 月夜閑聞洛水聲，  
 秋池暗度風荷氣。  
 日日長看提象門，  
 終身不見門前事。  
 近年又送數人來，  
 自言興慶南宮至。  
 我悲此曲將徹骨，  
 更想深窻復酸鼻。  
 此輩賤嬪何足言，  
 帝子天孫古稱貴。  
 諸王在閣四十年，  
 十宅六宮門戶闕。  
 隋煬枝條襲封邑，  
 肅宗血胤無官位。  
 王無妃媵主無壻，  
 陽亢陰淫結災累。  
 何如決壅順衆流，  
 女遣從夫男作吏。

높은 樓閣에 올라가 얼큰하게 술에 취한다.  
 술이 취하면 곧장 士大夫 집으로 들어가니,  
 부녀자들은 몰래 피해 달아날 수 없었다네.  
 남편은 부인을 바라보며 死別이라 생각하고,  
 딸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네.  
 많은 宮女 중에서 한 명만 寵愛를 받으니,  
 深宮에 갇힌 몸이 되어 벗어날 수가 없네.  
 오랑캐가 쳐들어와 皇帝가 南으로 피하니,  
 三千宮女가 모두 함께 宮闕에 버려졌구나.  
 宮門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지만,  
 上陽宮엔 꽃이 피고 푸른 이끼가 끼는구나.  
 달밤에는 낙수 물 소리 한가하게 들려오고,  
 가을 연못에서 바람결에 연꽃향기 불어오네.  
 매일 하루 종일 宮闕門을 쳐다보고 있지만,  
 평생토록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네.  
 최근에 또 여러 명의 宮女들이 들어왔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興慶南宮에서 왔다고 하네.  
 나는 이런 曲折이 슬퍼 뼈 속까지 사무치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콧등이 시큰해지네.  
 이 버림받은 宮女들의 무슨 말을 하겠는가,  
 皇帝의 자손들은 예부터 귀한 대접 받았네.  
 여러 王들이 대궐에 기거한지 사십년 동안,  
 열채의 邸宅과 六宮의 문이 모두 닫혀있네.  
 隋煬帝의 후손들에게도 封邑을 世襲하면서,  
 肅宗皇帝의 피붙이에게는 官職도 주지 않네.  
 王은 妃嬪이 없고 公主에게는 駙馬가 없어,  
 陰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재난이 쌓이네.  
 어찌해야 막힌 것을 뚫어서 순조롭게 하여,  
 여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을 관리가 될까.

위 시에서 보면 전반부에는 花鳥使<sup>48)</sup>들에게 끌려 와서 深宮에 갇혀 평생을 보

내야 하는 가련한 宮女를 묘사하고, 후반부에는 “前王朝의 隋煬帝 후손도 封邑을 세습 받는데, 肅宗의 후손들은 관직도 없다.”고 하여, 간택되지 못한 가련한 궁녀를 처지를 빌려 皇族이 관직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王은 妃嬪이 없고 公主는 駙馬가 없으니 陰陽의 조화가 흐트러져 결국 재난이 쌓였다. 어떡하면 막힌 곳을 뚫어 순조롭게 하여 여자는 시집보내 남편을 따르게 하고, 남편은 관리가 되게 할까”하여, 災難의 원인이 남녀가 짝을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고는 女必從夫의 논리로 끝나고 있어, 皇族의 작위와 혼인, 궁녀의 출궁 등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년 후(元和 12년)에 지은 <連昌宮詞>를 보면 시가체제가 <上陽白髮人>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連昌宮詞

連昌宮의 노래

連昌宮中滿宮竹，  
歲久無人森似束。  
又有墻頭千葉桃，  
風動落花紅蔌蔌。

連昌宮闕 안에 꽂차있는 대나무 숲은,  
오래 비워서 숲이 다발로 묶은 듯하고.  
또한 담장 위에 있는 복숭아나무에서,  
바람에 붉은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네.

.....

.....

小年進食曾因入。  
上皇正在望仙樓，  
太眞同凭欄干立。  
樓上樓前盡珠翠，  
炫轉熒煌照天地。

어린 시절 음식을 올리려고 들어갔었지.  
皇帝께서는 때마침 望仙樓에 계셨는데,  
楊貴妃와 함께 난간에 서있어 계셨다네.  
樓閣에는 온통 眞珠와 翡翠로 장식하여,  
輝煌燦爛한 빛이 天地四方을 비추었네.

.....

.....

明年十月東都破，  
御路猶存祿山過。  
驅令供頓不敢藏，  
萬姓無聲淚潛墮。

다음 해 시월에 東都 洛陽이 함락되더니,  
임금 다니시던 길에 安祿山이 지나가네.  
宴會用品을 바치라하니 숨기지도 못하고,  
만백성들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었네.

.....

.....

48) 元稹이 스스로 注를 달기를 “天寶 年間에 王의 密書를 받아 宮女를 모으는 자를 花鳥使라 하였다.”(天寶中，密號採取豔異者爲花鳥使。)

去年敕使因斫竹，	지난 해 皇帝의 使者가 대나무를 베었는데，
偶值門開暫相逐。	마침 문이 열려있어 잠시 따라가 보았더니，
荊榛櫛比塞池塘，	잡목들만 뺨뺨이 서있고 연못엔 물이 없고，
狐兔驕癡綠樹木。	여우와 토끼가 친진하게 숲속에서 노는구나。
.....	.....
弄權宰相不記名，	권세를 희롱한 宰相 이름은 기억이 없으나，
依稀憶得楊與李。	어렴풋이 楊 아무개 李 누구라고 기억나네。
廟謨顛倒四海搖，	朝廷 政策이 뒤집어져 온 나라가 흔들리고，
五十年來作瘡痍。	오십년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네。
.....	.....
年年耕種宮前道，	해마다 宮殿 앞길을 일구어 농사지었으나，
今年不遣子孫耕。	今年에는 자식들에게 짓지 말라 해야겠네。
老翁此意深望幸，	老人의 皇帝가 枉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努力廟謨休用兵。	朝廷에서 전쟁하지 않는 정책에 힘쓰는 것。

폐허가 된 連昌宮을 통하여 皇帝의 사치와 향락으로 因하여 나라가 戰禍에 휩싸여 백성들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奸臣들을 경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宮邊老人’의 입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다.

<上陽白髮人>이 비해 주제가 명확하고, 觀察者적 視點도 白居易의 <新豐折臂翁>과 같은 一人稱 觀察者적 시점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句의 篇幅도 달라져 《和李校書新題樂府》 12首에서는 전부 七言이지만 《樂府古題》 19首에서는 3·3·7體를 사용한 것도 있고, <君莫非>는 《詩經》처럼 전체가 四言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詩의 題材도 크게 확대되어 《和李校書新題樂府》 12首에서는 ‘予取其病時之尤急者’<sup>49)</sup>하여 대부분 그 題材가 ‘當時 朝廷의 失政(病時)’<sup>50)</sup>와 관련이 있지만 《樂府古題》 19首에서는 그 題材가 朝廷에서부터 하층 민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양해졌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白居易의 ‘首句標其目，卒章顯其志。’(《新樂府并序》) 방식을 채택하여 《樂府古題》 19首에서는 대부분 첫 句에서 제

49) 이 문장을 백거이의 ‘惟歌生民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惟歌生民病’은 오로지 백성의 고통을 읊는다는 의미지만 元稹의 ‘新題樂府’에서는 대부분 支配階級の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다. 따라서 ‘病時’는 ‘當時 朝廷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0) 《和李校書新題樂府》 12首는 그중에서 <上陽白髮人>을 제외하고, 7曲이 외래음악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변방장수나 외국과 교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목을 따왔고, 마지막 聯에서 詩의 宗旨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陳寅恪은 元稹이 <連昌宮詞>를 지은 배경에 대하여

“連昌宮詞는 元稹이 白居易의 長恨歌에서 제재를 취하고 白居易의 新樂府 체제를 따라 새롭게 창조하여 이루어낸 새로운 작품이다.”

(連昌宮詞者, 微之取樂天長恨歌之題材依香山新樂府之體制改進創造而成之新作品。) 51)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진은 元和 4年 (809) “젊은 날 친구 白居易 · 李公垂 등과 함께 한 말이 옳다고 여겨 더 이상 古題를 모방하여 詩를 짓지 않기로 하였다. (予少時與友人樂天 · 李公垂輩, 謂是爲當, 遂不復擬賦古題。)”52)가 8년이 지난 元和 12년 (817)에는 초심을 바꾸어 劉猛 · 李餘에게 古題로 쓴 《樂府古題》 19首를 唱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해 동안 劉猛과 李餘의 비록 古題를 사용하였으나 古意가 조금도 없는 (雖用古題, 全無古意。) 작품을 통하여 古題에 뜻을 기탁 (寓意古題)하더라도 刺美見事 (일에 따라 풍자하고 찬미한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지은 《樂府古題》 19首는 일반적으로 古意적인 古樂府가 아니라, 新樂府의 특징을 지닌 古題樂府이다. 그러므로 郭茂倩은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元稹의 《樂府古題》 19首 중 11首를 선별하여 《樂府詩集 · 新樂府詩》에 편찬하였다.

이처럼 처음 “다시는 古題를 모방하여 시를 짓지 않겠다. (不復擬賦古題。)”고 했다가 “비록 古題를 사용했더라도 古意는 조금도 없다. (雖用古題, 全無古意。)”로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陳寅恪은

元稹은 新題樂府에 있어서 樂天을 이길 수 없어서, 劉猛과 李餘의 樂府古題 詩에 화답하는 것을 기회로 이전에 지었던 新題樂府의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난날의 體裁를 바꾸지 않고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詞’를 생각해내어 白居易를 追窮하고, 그를 追越하려고 하였다.

51) 陳寅恪《元白詩箋證稿》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6. 重印. p.63.

52) 冀勤點校,《元稹集》上 <樂府古題序>

(微之於新題樂府，既不能競勝樂天，而藉和劉猛李餘之樂府古題，以補救前此所作新題樂府之缺憾，則不改舊時之體裁，而別出新意新詞，而蘄追及樂天而軼出之也。)<sup>53)</sup>

라고 평가하고 있다.

《新題樂府》가 寄興手法를 사용한 작품이라면 《樂府古題》는 創新之詞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第 2節 白居易 新樂府 特徵

### 1. 詩歌主張 - 內容의 重要性을 강조

白居易는 <新樂府并序>에서

“篇마다 정해진 句數가 있는 것도 아니고, 句마다 정해진 글자 數가 없는 것은 新樂府는 뜻을 밝히는데 있지, 문장을 꾸미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첫 句節에서 주제를 내세우고, 마지막 句節에 뜻을 나타내는 것은 《詩經》 300篇의 서술 방식이다.”

(篇舞定句, 句舞定字, 繫於意, 不繫於文, 首句標其目, 卒章顯其志, 《詩》三百之義也。)<sup>54)</sup>

하여 詩歌 內容의 重要성과 新樂府가 《詩經》의 체제를 따랐음을 밝히고, 이어서 “임금 · 臣下 · 百姓 · 萬物과 萬事를 위해 지은 것이지, 文章을 꾸미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爲君, 爲臣, 爲民, 爲物, 爲事而作, 不爲文而作也。)”<sup>55)</sup> 라고 하여 新樂府 창작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3) 陳寅恪, 《元白詩箋證稿》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6. 重印. p.311.

54) 謝思煒撰, 《白居易詩集》 <新樂府并序>

55) 謝思煒撰, 《白居易詩集》 <新樂府并序>

그는 또 詩歌는 현실생활과 정치사회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통치자는 詩歌로써 “정치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고,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고, 피곤하면 쉬게 할 수 있다. (政之廢者修之, 闕者補之。人之憂者樂之, 勞者逸之.)”<sup>56)</sup>는 것과 “말한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警戒로 삼을 수 있어, 아래와 위가 통하여 위아래가 태평하게 된다. (言者無罪聞者誠, 下流上通上下泰.)”<sup>57)</sup>고 하여 詩歌의 功利性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詩歌란 객관적인 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무릇 사람이 어떤 일에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연후에 감탄과 탄식이 절로 일어나 노래와 詩로 나타나게 된다.

(大凡人之感於事, 則必動於情, 然後興於嗟歎, 發於吟詠, 而形於歌詩矣。)<sup>58)</sup>

라고 여겼고, 또한

그러므로 임금이 현명하고, 신하가 훌륭하다는 노래를 들으면 虞나라의 道가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고, 五子<sup>59)</sup>洛汭의 노래가 들리면 夏나라의 정치가 황폐했음을 알 수 있다.

(故聞元首明股肱良之歌, 則知虞道昌矣。聞五子洛汭之歌, 則知夏政荒矣。)<sup>60)</sup>

라고 하여 詩歌가 반영하는 현실생활이란 결코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혼란, 朝政의 得失,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등 중대한 정치와 현실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白居易의 五爲<sup>61)</sup>를 견지한 시가 주장은 詩歌와 정치의 관계를 밀접하게 揭示하여, 詩歌 창작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현실정치를 위해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의 詩學觀을 반대하였다.

56) 謝思煒撰, 《白居易文集》《策林, 69·採詩》

57) 謝思煒撰, 《白居易詩集》〈采詩官〉

58) 謝思煒撰, 《白居易文集》《策林, 69·採詩》

59) 【五子】: 夏나라 太康의 다섯 형제.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60) 謝思煒撰, 《白居易文集》〈與元九書〉

61) 五爲: 爲君, 爲臣, 爲民, 爲物, 爲事.

바로 ‘爲君’, ‘爲臣’은 현실정치를 위한 것이고, 봉건통치를 위한 것이다. 그는 그의 詩를 皇帝와 조정의 중신들이 읽은 후 警戒로 삼아 補察時政 (<與元九書>) 하고, 더 나아가 下流上通上下泰 (<采詩官>)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의 爲民 · 爲物은 백성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다. 詩歌는 당연히 백성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백성의 고통만을 노래한다. (惟歌生民病)” 는 것을 新樂府詩의 숭고한 責務로 여겨, 자신이 《秦中吟》을 창작하게 된 동기를 <傷唐衢>에서

지난날 元和 年間 初에 막 諫官이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끝난 직후라 백성들의 매우 시달리고 있었다. 다만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려고 했을 뿐, 當時에 누가 끼리는 줄은 몰랐다. 마침내 《秦中吟》을 지어 한 首에 한 가지 일을 슬프게 읊었다.”

(憶昨元和初, 忝備諫官位。是時兵革後, 生民正憔悴。但傷民病痛, 不識時忌諱。

遂作《秦中吟》一吟悲一事。)62)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詩歌는 백성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는 詩歌 主張을 명확하게 전개하여 新樂府詩派 뿐만 아니라 후세 시인들에게도 “文章은 때에 맞게 써야하고, 詩歌는 일에 맞게 써야 한다. (文章合爲時而著, 歌詩合爲事而作。)”63)는 새로운 시가 창작 이론을 제시하였다.

‘爲事’는 국가와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중대한 當時의 일을 詩에 반영하는 것이다. 설사 當時의 일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풍속이나 失政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면 쓸 수 있지만, 그러나 嘲風雪, 弄花草 (<與元九書>)하는 詩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漢樂府의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또한 詩를 창작하는데 사실성을 강조하여 허구, 과장, 환상 등의 낭만주의 수법을 배제하고, 실제 인물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시를 창작할 것을 주장함으로

62) 謝思煒撰, 《白居易詩集》<傷唐衢>

63) 謝思煒撰, 《白居易文集》<與元九書>

서 그의 新樂府는 사상내용은 강조했지만 예술형식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新樂府并序>에서

그 文章이 꾸밈없고 바른 것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직접적이고 절절한 것은 듣는 사람이警戒로 삼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일이 확실한 것은 採詩者로 하여금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 詩體가 순하고 음률에 맞는 것은 노래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其辭質而徑, 欲見之者易諭也。其言直而切, 欲聞之者深誠也。其事覈而實, 使采之者傳信也。其體順而肆, 可以播於樂章歌曲也。)<sup>64)</sup>

라고 하여 詩歌는 이 네 가지 (質而徑 · 直而切 · 覈而實 · 順而肆)에 맞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質而徑은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新樂府의 諷諭와 美刺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辭賦가 풍유하기에 적당하면, 비록 질박하고 거칠어도 권장하여 채용하고, 비석에 새겨진 글이라도 거짓으로 칭송하는 말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막아 금지 시켜야한다.

(俾辭賦合炯戒諷諭者, 雖質雖野, 採而獎之。碑誄有虛美愧辭者, 雖華雖麗, 禁而絕之。)<sup>65)</sup>

라고 하여 풍유와警戒의 의의를 갖춘 작품이라면 문체가 좀 투박하더라도 마땅히 권장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진 글이라면 비록 예술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마땅히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4) 謝思煒撰, 《白居易詩集》<新樂府并序>

65) 謝思煒撰, 《白居易文集》《策林, 68 · 議文章》

直而切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을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나타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즉 單刀直入의 時事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현실정치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폐단에 대해서 예들러 말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詩學觀은 豪門貴族의 방탕함과 宦官跋扈의 포악함을 세상에 폭로하여 “權門勢家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군대를 장악한 자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權豪貴近者相目而變色矣, 握軍要者切齒矣.)”<sup>66)</sup> 하였다.

覈而實은 素材의 진실성으로, 素材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와야 비로소 독자에게 자신의 소신을 전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여겼다. 이것은 白居易의 일관된 주장이며, 이미 《策林》〈議文章〉에서 “지금 칭찬과 비난의 글에 진실성이 없으면 권선징악의 道가 무너질 것이다. (今褒貶之文無覈實, 則懲勸之道缺矣.)”라고 제기하였었다. 이처럼 문장 내용이 ‘覈實’의 수준에 도달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게 할 것을 요구하여 문장이 진실해야만 비로소 新樂府의 諷諫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順而肆는 聲律에 音樂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新樂府는 평범한 詩體를 사용하고, 格律之上을 반대하여 음악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宮律이 고상함을 구하지 않고, 奇異한 문자를 쓰려고 애쓰지 않는다. (非求宮律高, 不務文字奇.)”<sup>67)</sup>고 하였고, 또 “옛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마음으로 불렀는데, 요즘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소리만 지른다.(古人唱歌兼唱情, 今人唱歌唯唱聲.)”<sup>68)</sup> 라고 하여, 聲律을 위한 聲律이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聲律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詩歌體制의 변화 - 《秦中吟》에서 《新樂府》로

白居易의 樂府詩도 《秦中吟》 10수와 《新樂府》 50수를 비교해보면 시가체제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素材로 쓴 《秦中吟》의 〈買花〉를 《新樂府》의 〈牡丹芳〉을 같이 놓고 보면

66) 謝思煒撰, 《白居易文集》〈與元九書〉

67) 謝思煒撰, 《白居易詩集》〈寄唐生〉

68) 謝思煒撰, 《白居易詩集》〈問楊瓊〉

《秦中吟》〈買花〉

買花

꽃을 사다

帝城春欲暮，  
喧喧車馬度。  
共道牡丹時，  
相隨買花去。

長安城에 봄이 막 저물려는 무렵에,  
요란스럽게 수레와 말이 지나 간다.  
다들 모란꽃 철이 되었다고 말하며,  
서로서로 앞 다뒀 꽃을 사러 간다네.

.....

.....

有一田舍翁，  
偶來買花處。  
低頭獨長歎，  
此歎無人諭。  
一叢深色花，  
十戶中人賦。

시골에서 올라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우연히 꽃을 파는 곳에 와서 보고는.  
고개 숙이고 홀로 길게 탄식을 해도,  
이 탄식을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네.  
한 무더기 짙고 활짝 핀 모란꽃 값이,  
중산층 열가구의 세금과 맞먹는 것을.

《新樂府》〈牡丹芳〉

牡丹芳

모란의 향기

(美天子憂農也)

농사를 근심하는 천자를 찬미함

牡丹芳，牡丹芳，  
黃金藥綻紅玉房。  
千片赤英霞爛爛，  
百枝絳點燈煌煌。

모란의 향기, 모란의 향기,  
홍옥 같은 화방에서 금빛 꽃술 터졌네.  
천 송이 붉은 꽃봉오리 저녁노을 같고,  
백 줄기 붉은 가지 등불처럼 타오르네.

.....

.....

遂使王公與卿士，  
遊花冠蓋日相望。  
庫車軟轡貴公主，

마침내 왕공들과 공경대부들로 하여금,  
꽃놀이 수레가 온종일 이어지게 하네.  
낮은 수레 작은가마 탄 이는 귀공주요,

香衫細馬豪家郎。	향 적삼 좋은 말 탄 이는 부잣집 도령일세.
.....	.....
花開花落二十日，	모란꽃이 피고 지는 스무날 동안에는，
一城之人皆若狂。	장안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미친 듯이.
三代以還文勝質，	삼대 이래 화려함이 질박함을 압도하여，
人心重華不重實。	사람 마음 실속보다 화려함을 중시하네.
.....	.....
我願暫求造化力，	내가 조물주의 힘을 잠시 빌릴 수 있다면，
減却牡丹妖艷色。	모란꽃의 요염한 아름다움을 줄이고 덜고.
少廻卿士愛花心，	공경대부 愛花心을 잠깐 딴 데로 돌려서，
同似吾君憂稼穡。	우리 임금님처럼 농사일 걱정하게 하겠네.

《秦中吟》〈買花〉와 《新樂府》〈牡丹芳〉은 모두 전반부는 모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중반부에는 長安城에 살고 있는 富豪들의 꽃구경 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풍자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주제가 달라져 〈買花〉에서는 ‘질고 고운 모란꽃 한 다발에 中産層 열가구의 세금과 맞먹는다. (一叢深色花, 十戶中人賦。)’하여 부호들이 사치만을 諷刺하고 있지만, 〈牡丹芳〉에서는 小序에 ‘農事를 근심하는 황제를 찬미한 것이다. (美天子憂農也)’라고 밝힌 것처럼 겨우 스무날 남짓 피는 꽃 때문에 농민들이 꽃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자 “元和 年間 皇帝께서 농사일을 근심하여 백성들을 가엽게 여기니 하늘도 감동하여 복을 내려주어 작년에는 벼 한 줄기에서 아홉 이삭씩이나 달렸으나 논밭에 오는 사람이 없어 적막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리 이삭이 두 갈래로 났으나 임금 혼자 기뻐 할 뿐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元和天子憂農桑, 恤下動天天降祥。去歲嘉禾生九穗, 田中寂寞無人至。今年瑞麥分兩岐, 君心獨喜無人知。)”하여 풍년이 들어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음을 한탄하고, 임금이 농사일을 걱정하는 것을 讚美하고 있다.

위의 두 詩를 비교하여 보면 《新樂府》50首에서도 《秦中吟》의 一吟悲一事<sup>69)</sup>의 방식을 채택하고,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서술형식으로 보면

69)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6. 重印. p.128.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시가체제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秦中吟》 10首는 모두 五言體이지만 《新樂府》 50首에서는 七言을 기본으로 하여 3·3·7體 또는 3言 · 5言 · 7言 · 9言이 섞여있는 작품이 대부분이고, 다음 《新樂府》는 并序에서 밝힌 것처럼 《詩經》 300篇의 체제를 따라 ‘첫 句節에서 제목을 취하고, 마지막 句節에 뜻을 나타낸다. (首句標其目, 卒章顯其志。)’는 것과 小序를 달아 詩의 主題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이것은 《秦中吟》 10수에는 없는 형식으로 《新樂府》 50수가 전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였다. 그리고 題材의 범위도 고위층의 사치와 향락을 규탄하고, 하층 민중들의 삶에 대한 동정이 대부분인 《秦中吟》보다 광범위해져 고위층의 향락과 하층 민중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황제 · 환관 · 관리 · 변방장수 · 상인 · 외래문화 등 다양해졌다.

### 第 3節 小結

元稹과 白居易의 詩歌 주장을 보면 元稹은 젊었을 때 白居易 · 李公垂 등과 더불어 다시는 古題를 모방하여 詩를 짓지 않기로 하여 李紳의 《新題樂府》를 화답할 때는 새로운 제목(新題)으로 시를 지었으나 나중에 劉猛과 李餘가 지은 古題樂府를 보고 비록 古題를 사용하더라도 내용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있으면 된다고 보고 《樂府古題》 19首에서는 古題를 사용하여 시를 짓고는 ‘古意가 있는 듯해도 모두 전부 새로운 글이다 (頗同古意, 全創新詞。)’라고 하여 제목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용이 새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지었던 新題樂府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의미의 詞를 생각해내었다. (以補救前此所作新題樂府之缺憾, 而別出新意新詞。)70) 예를 들어 孟郊의 <出門行>은 이별을 노래한 것이지만 元稹의 <出門行>은 이별을 노래하지 않은 것처럼 내용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漢樂府의 ‘諷諭美刺’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古樂府 체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체재와 제목에 속박을 받지 않

을는 것은 비록 진중음 10수의 통상적인 법칙이지만 실제로 신악부 50수에도 그렇지 않은 편이 한 편도 없다.” (一吟詠一事, 雖爲秦中吟十首之通則, 實則新樂府五十篇亦無一篇不然。)

70)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2, 6. 重印. p.311.

고 樂府 창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詩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寄興을 강조하였는데 詩에는 조금이라도 寄興이 있을 것(稍存寄興)을 주장하여 자기가 지은 작품도 기흥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 그는 특별히 두보의 <悲陳陶>와 같은 詩를 강조하고 沈佺期和 宋之問의 詩에 寄興이 없음을 비평하고 있다.

元稹의 詩歌 주장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형식에 있어서 ‘創新’과 ‘寄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白居易의 詩歌 주장은 전통적인 儒家 詩論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新樂府并序>에서 먼저 五爲를 주장하여 詩歌의 정치작용과 사회의의를 강조하여 詩歌를 봉건통치와 봉건질서를 보호하는 도구로 여기고, 詩歌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천하를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詩歌 창작은 적극적으로 현실정치를 위해 창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장을 꾸미기 위해 시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언어의 通俗性和 平易性を 주장하였다. “그 文章이 꾸밈없고 바른 것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其辭質而徑, 欲見之者易諭也.)” 라고 밝힌 것처럼 읽으면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散文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러한 特性 때문에 淺俗하다는 惡評을 받기도 했지만, 이 점은 옛날 文人들 중에 아무도 따를 수 없는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쉬운 말로 시를 짓는 것에 대하여 蘇東坡는 ‘元輕白俗’이라 평가했지만, 劉熙載는 《藝概》에서 “平凡한 말로 詩를 짓는 것은 쉽고, 奇異한 말로 詩를 짓기 어려워하는 것은 詩의 초짜들이다. 奇異한 말은 쉽고, 平凡한 말은 어려운 것, 이것은 詩를 좀 지어본 사람이다. 白居易는 平凡한 말로 奇異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아무나 쉽게 이를 수 있는 境地가 아니다. (常語易, 奇語難, 此詩之初關也. 奇語易, 常語難, 此詩之重關也. 香山用常得奇, 此境良非易到.)”<sup>71)</sup>라고 극찬 하고 있다.

두 시인의 시가체제가 바뀐 것을 보면 元稹의 《樂府古題》 19首는 白居易의

71) 靳亞州編著《白居易與新樂府》,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2009. p.52에서 인용

《新樂府》 50首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元稹이 먼저 《新題樂府》 12首를 쓰고, 白居易는 다시 이 12首를 50首로 확장하여 《新樂府》 50수를 쓰고<sup>72)</sup>, 다시 元稹이 《新樂府》 50수와 李餘와 劉猛의 ‘古題樂府’에서 영감을 얻어 《樂府古題19首》를 썼다고 볼 수 있다.

---

72) 謝思煒撰, 《白居易詩集》〈新樂府并序〉注 “원진의 화답한 12수의 체제를 백거이가 채용하고, 아울러 50수로 확충했다.” (元稹所和12首之題, 則爲居易採用, 并擴充爲五十首。)

## 第4章 元稹 · 白居易 新樂府의 異質性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는 朝廷의 失政과 부패를 폭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강력한 抵抗詩이다. 따라서 그들의 樂府詩는 當時 사회의 모든 문제점, 즉 朝廷의 失政, 변방장수들의 專橫, 환관들의 발호, 귀족들의 사치, 외래문화의 유입, 그리고 하층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 등등 그 題材의 범위가 정치 ·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元稹과 白居易는 新樂府에서 같은 題材를 사용했더라도 그 主題가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제목으로 쓰인 樂府詩에도 서로 다른 議論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主題가 독창적인 것도 있다. 이 章에서는 그들의 작품에 들어있는 異質性을 살펴보고자한다.

### 第1節 同一 主題에서 異論

#### 1. 國家의 興亡盛衰

元稹과 白居易의 政治思想의 根本 출발점은 封建統治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 李唐王朝의 忠臣으로서 그들의 이상과 희망은 완전히 當時의 皇帝에 寄託한 盡忠報國의 封建倫理 관념이 상당히 농후하였다. 그들은 함께 저술한 《策林》을 보면

모든 백성이 추구하는 바가 황제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대개 興亡 · 治亂이 황제의 教化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황제의 행위가 교화의 興亡의 근본이 되고, 황제의 행동거지가 사람들의 理亂의 근원이 된다.

(故億兆之所趨，在一人之所執。……蓋興廢理亂，在君上所教而已。故君之作爲，爲教興廢之本。君之舉措，爲人理亂之源。)<sup>73)</sup>

라고 주장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는 황제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

73) 謝思煒撰,《白居易文集》《策林, 2 · 策項》

이다. 그러나 그 失政의 원인과 해결책에 가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조금 달라진다.

#### 1) 奸臣 排斥과 賢者 登用 - 元稹

元稹은 當時 무력을 멋대로 사용하는 ‘窮兵黷武’와 ‘宦官들의 跋扈’로 인하여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조정에 賢者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新樂府에는 皇帝에게 奸臣을 물리치고 賢者를 중용할 것을 바라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한 그러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로 寓言으로 되어있다.

<冬白紵>는 吳王 夫差와 西施의 古事를 빌려 官리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뭇나라 宮闕에서 밤늦도록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밧과 휘장이 사망으로 내려져있으니 등불만으로도 따뜻하네. (吳宮夜長宮漏款, 簾幕四垂燈焰暖。)”하여 吳王 夫差와 西施가 함께 달콤한 밤을 보내고 있음을 묘사하고, 후반부에 “잠에서 막 깨어 정신없는 吳王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짓 보고를 하니, 伍子胥가 죽은 후 臣下들은 바른말 하기를 꺼려하였네. 王의 측근들은 王의 비유를 맞추느라, ‘越王 句踐은 몹시 두려워서 밤마다 얼음을 껴안은 듯이 벌벌 떨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면서 함께 웃고 있구나. (寢醒闔報門無事, 子胥死後言爲諱。近王之臣諭王意, 共笑越王窮惴惴, 夜夜抱冰寒不睡。)” 하여 西施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吳王과 아부하고 있는 그 측근들을 빌려 當時 皇제를 欺瞞하는 朝廷重臣들을 비난하고 있다.

<捉捕歌>는 전체가 寓言으로 詩 중에서 “잡고 또 잡아도, 여우와 토끼는 잡지 못한다. 여우와 토끼는 깊은 굴에 숨어 살고, 승냥이와 이리는 길을 막는다. 길을 터놓지 않으면, 땅강아지와 개미가 모여드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 승냥이와 이리는 陷穽을 과지 않지만, 땅강아지와 개미는 좀(蠹)처럼 숨어든다. (捉捕復捉捕, 莫捉狐與兔。狐兔藏窟穴, 豺狼妨道路。道路非不妨, 最憂螻蟻聚。豺狼不陷穽, 螻蟻潛幽蠹。)”하여 여우와 토끼를 各地에 있는 貪官汚吏를 비유하고, 승냥이와 이

리로 지위가 높은 관리를 비유하고, 땅강아지와 개미를 황제 주위의 환관에 비유하였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망치는 무리들로서 환관들은 “천천히 가름대와 대들보 받침대를 좀 먹기 시작하여 서까래와 기둥으로 들어가 서까래와 기둥속이 다 비어도 파먹은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延緣蝕欂櫨, 漸入棟梁柱。梁棟盡空虛, 攻穿痕不露。)” 좀과 같은 존재로서 왕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데도 티가 안 나는 심복이라고 여겼고, 다음은 권력을 휘두르는 重臣이고, 그 다음은 지방의 탐관오리들이라고 여겼다. 시인은 “임금께서 대들보와 기둥을 깨끗이 청소하여 땅강아지와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다음으로 길을 청결하게 하여 승냥이와 이리의 행보를 모두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願君掃棟梁, 莫遣螻蟻附。次及清道途, 盡滅豺狼步。)”라고 하여 먼저 조정의 나쁜 무리들을 제거하고, 지방의 貪官汚吏들에 대해서는 “교활한 토끼 굴은 파내어 가시나무로 덮어버리고, 요사스러운 여우 굴은 태워서 오래된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 (狡兔窟荒榛, 妖狐薰古墓。)”고 提起하여 奸臣과 貪官의 무리들을 완전히 剔扶할 것을 주장하였다.

<五弦彈>에서 전반부에서는 趙璧이 五弦을 타는 수준이 매우 환상적임을 묘사하고 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賢人을 登用하여야만 治國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詩 중에서 “臣下에도 五賢이 있습니다만 이 五弦은 아닙니다. 혹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도살장이나 낚시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臣有五賢非此弦, 或在拘囚或屠釣。)”<sup>74)</sup>하여, 옛 王朝가 賢者를 찾아 중용하여 國泰民安을 이루었다는 古事를 인용하여, 趙璧이 五弦을 잘 다루듯이 朝廷에서도 “五賢을 함께 登用하면, 五常이 조화롭고, 五常이 질서를 잡게 되면 三光<sup>75)</sup>이 빛이 납니다. 趙璧의 五弦은 이 五賢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 많은 날을 庭燎<sup>76)</sup>를 설치하느라 고생하는가? (五賢並用調五常, 五常既序三光曜。趙璧五弦非此賢, 九九何勞設庭燎?)”하여, 보잘 것 없는 음악에는 훌륭한 樂士를 쓰면서 중요한 國政에는 賢者를 重用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고, 또 그러한 賢者를 重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74) 殷나라 伊尹과 周나라 姜太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登用되지 못한 賢者를 가리킴.

75) 三光 : 日 · 月 · 星을 가리킴. 《莊子 · 說劍》에 위로 하늘을 본받으면 三光이 순조롭고, 아래로 땅을 본받으면 四季節이 순탄하다. (上法圓天以順三光, 下法方地以順四時。) 라는 句節이 있음.

76) 庭燎 : 옛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밤중에 대궐의 마당에 피우는 화톳불.

《華原磬》에서는 樂器를 邊方을 지키는 將帥에 比喻하였다.

華原磬

華原의 돌로 만든 磬<sup>77)</sup>

泗濱浮石裁爲磬,  
古樂疏音少人聽。  
工師少賤牙曠稀,  
不辨邪聲嫌雅正。

泗水 가에 있는 浮石을 다듬어서 磬을 만들면,  
옛 音樂은 音이 質朴하여 듣는 사람이 없었네.  
工師는 애송이고 伯牙와 師曠같은 연주가가 없어,  
사악한 소리도 分辨하지 못하고 雅音을 싫어하네.

.....

.....

何時得向筍簾懸,  
爲君一吼君心醒。  
願君每聽念封疆,  
不遣豺狼勦人命。

어느 때면 泗濱石으로 만든 磬을 순거에 매달아,  
임금을 위해 울려 임금의 마음을 깨우치게 할까?  
원컨대 임금께서 들으실 때마다 國境을 생각하여,  
사람 해치는 豺狼같은 놈들을 보내지 마시옵소서.

詩 전반부에서는 전통적으로 泗濱에서 채취한 돌로 樂器(磬)를 만들었는데 音이 質朴하여 듣는 사람도 드물고 또 胡族樂器와도 소리가 어긋나, 부드럽고 가공하기 쉬운 華原의 돌(華原軟石易追琢)로 磬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빌려 邊方에 용병을 쓰고 있음을 암시하여 朝廷의 用人 정책이 姑息之計임을 비난하는 작가의 華夷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詩 중에서 “<霓裳羽衣曲>을 막 거두자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 (《霓裳》纔徹胡騎來.)”라는 句는 異民族을 변방장수로 기용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다는 暗示이다. 詩 마지막의 “어느 때면 筍簾<sup>78)</sup>에 매달려 임금을 위해 소리 내어 임금을 깨우쳐, 임금께서 매번 들을 때마다 國境을 생각하시어 백성들을 해치는 豺狼같은 놈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는 句節은 皇帝가 자신을 중용하여 주길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2) 皇帝의 修身 - 白居易

國家의 興망성쇠가 皇帝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은 皇帝에 대한 아부라

77) 경(磬) : 돌을 다듬어 만든 꺾쇠(∧) 모양의 樂器.  
78) 순거(筍簾·筍簾) :磬을 매다는 樂器 틀.

기보다는 황제의 수신(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詩人으로서나, 諫官으로서나 항상 忠臣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였다.

諫官으로 임명되어, 직접 諫紙를 청하고, 皇帝께 上奏한 것 외에,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할 수 있고, 당시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 있는데, 꼬집어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詩歌로 지어, 차츰 皇帝께서 들을 수 있게 하였다.

(身是諫官, 手請諫紙。啓奏之外, 有可以救濟人病, 裨補時闕, 而難於指言者, 輒詠歌之, 欲稍稍遞進聞於上。)79)

이처럼 諫官으로서도 직책에 충실하여 皇帝와 權臣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가 諫官으로 있을 때 淮南節度使 王鏐이 入朝하여 많은 進上品을 받치고, 宦官에게도 뇌물을 주어 宰相의 자리를 매수하려고 하자, 白居易는 즉각 上疏<sup>80)</sup>를 올려 王鏐이 宰相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詩歌로써도 황제에게 올바른 政事를 위한 수신을 간언하였는데 그 방법은 規諫과 稱頌을 다 사용하였다.

#### 먼저 規諫의 작품을 보면

<海漫漫>은 小序에 ‘皇帝가 神仙되기를 바라는 망상을 경계한다. (戒求仙也)’라고 한 것처럼 詩에서는 秦始皇과 漢武帝가 不老草를 구해서 神仙이 되려고 했던 古事를 빌어 황제의 허황된 생각을 깨우치려하는 작품이다. 후반부의 “당신은 보시오! 秦始皇과 漢武帝의 무덤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무성한 잡초위에 불고 있는 것을, 하물며 老子的 道德經에도 不死藥이 있다는 말이 없고, 神仙이 된다는 말이 없고, 대낮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없다. (君看驪山頂上茂陵頭, 畢竟悲風吹蔓草。何況玄元聖祖五千言, 不言藥, 不言仙, 不言白日昇青天。)”하여 ‘秦始皇이 徐市(徐福)의 말을 믿어 不老草를 구하러 보낸 사건과 漢武帝가 李少君이나 方士

79) 謝思煒撰, 《白居易文集校注》〈與元九書〉

80) 謝思煒撰, 《白居易文集校注》〈王鏐欲除官事宜〉와 脚注 32) 參照

少翁의 甘言利說에 넘어가 불로초를 구하러 간<sup>81)</sup> 前代의 古事를 빌려 임금을 깨우치려 하고 있다.

<八駿圖>에서는 周穆王이 여덟 마리의 駿馬를 타고 四方八方을 돌아다니면서 宗廟에 祭祀도 안 지내고 國事도 돌보지 않아 周나라가 后稷에서 文王과 武王에 이르도록 쌓은 功德이 穆王에 이르러 穆王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周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漢文帝는 누가 千里馬를 헌상하였으나 타지 않고 돌려보내어 漢나라가 흥성했다는 古事를 引用하여, 小序에서 밝혔듯이 “奇異한 물건을 警戒하고, 놀기만 하는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이다 (戒奇物懲佚遊也)”한 것처럼 “皇帝 한 사람의 享樂에 때문에 萬 사람이 근심하게 된다. (一人荒淫萬人愁。)”하여 皇帝가 방탕한 遊樂을 멀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稱頌의 작품을 보면

<道州民>은 小序에서 밝힌 것처럼 “賢臣이 明君를 만난 것을 讚美하는 것이다. (美臣遇明主也)” 하여 지방 관리와 皇帝의 仁政을 찬미하고 있다.

道州民	道州에 사는 백성
道州民, 多侏儒, 長者不過三尺餘。 市作矮奴年進送, 號爲道州任土貢。 .....	道州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작아서, 어른이 되어도 키가 겨우 석자 남짓이라네. 矮奴로 거래되고, 매년 皇帝에게 進上되어, 道州 土產品이라는 이름으로 進上되었다네. .....
一自陽城來守郡, 不進矮奴頻詔問。 城云臣按六典書, 任土貢有不貢無。	陽城이 이곳 지방 刺史로 부임한 후로는, 더 이상 進上하지 않으니 자주 문책하네. 楊城이 아뢰기를 六法全書를 다 뒤져봐도, 있는 것은 進貢하고 없는 것은 進上 않네.

81) 金喆洙 譯註, 《白居易의 新樂府 50수와 秦中吟 10수, 中唐 사회를 비추다》, 白山出版社, 2007. p.37에서 引用.

道州水土所生者,	道州 지방 땅과 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只有矮民無矮奴。	키 작은 백성이 있을 뿐矮奴는 없다하니.
吾君感悟璽書下,	우리 皇帝께서 깨달으시고 勅書를 내리시어,
歲貢矮奴宜悉罷。	歲貢으로矮奴를 바치는 걸 모두 廢止했네.
.....	.....

道州 지방에서 해마다 土產品이라 하여 난장이를 進上하던 것을 楊城이 부임한 후에 進上하는 것을 그만두게 한 것에 대하여 刺史 楊城과 皇帝를 칭송하고 있다.

<七德舞>도 小序에 “亂을 收拾하고 王業을 꺾음을 찬양하는 것 (美撥亂陳王業也)”이라 하여 ‘秦王(唐太宗)’의 仁政을 讚美하는 것이다.

七德舞	칠덕무
.....	.....
亡卒遺骸散帛收,	戰死한 兵士 遺骸 흩어진 것을 비단에 거두고,
饑人賣子分金贖。	굶주린 사람이 판 자식을 되사서 돌려주었네.
.....	.....
怨女三千放出宮,	怨恨맺힌 三千 宮女를 모두 宮에서 내보내주고,
死囚四百來歸獄。	假釋放한 사백 명의 사형수 監獄으로 돌아왔네.
.....	.....
太宗意在陳王業,	太宗이 七德舞를 지어 王業을 陳述하는 까닭은,
王業艱難示子孫。	王業이 어려움을 子孫들에게 보여주려 함이시라.

이 詩는 병사와 민간인의 입장에서 唐太宗의 仁政을 讚美한 것이지만 맨 마지막 節에서 보이는 것처럼 皇帝께서 先王의 본을 받으라는 諫言의 뜻이 있다.

白居易의 詩에서는 功德을 칭송하는 작품일지라도 통상적인 ‘虛美之辭’와는 취지가 매우 다르다. 즉 頌美를 위한 頌美가 아니라 規諫을 하기 위하여 稱訟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杜陵叟>에서 “皇帝께서 백성들의 피폐를 아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京畿地域 금년 세금은 모두 면제해준다는 조서를 내린 일 (帝心惻隱知人弊, 白麻紙上書德音, 京畿盡放今年稅.)”을 찬미하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옷을 벗겨가고, 내 입에 문 곡식을 빼앗아 가는 (剝我身上帛, 奪我口中粟.)” 야만적이고 잔인한 官吏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節의 “열 집에서 아홉 집은 이미 세금을 내었으니, 임금님 免稅 은총은 받으나마나 되었구나. (十家租稅九家畢, 虛受吾君蠲免恩.)”는 皇帝 은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諫言하고 있다.

<重賦>에서도 “나라에서 兩稅法을 제정한 것은 본래의 의도는 백성들의 租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정해진 세금 외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모두 법을 어긴 죄로 처벌하겠다. (國家定兩稅, 本意在憂人。…… 稅外加一物, 皆以枉法論.)”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을 칭송하고 있지만, 이것은 ‘羨餘’란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세금을 거두어 가(斂索無冬春)” 있으나마나한 法이 되었다는 것과 “내 몸의 따스함을 빼앗아다가, 네 눈이 임금 은총을 사려하는구나. (奪我身上暖, 買爾眼前恩.)”하는 지방 관리의 가혹한 수탈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 2. 民衆들의 苦難

### 1) 가혹한 세금 - 元稹

中國 封建社會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모순은 농민들과 통치 집단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어서, 가장 보편적인 현실정치는 ‘어떻게 농민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인가?’이다. 安史의 亂 이후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져 膏骨吸收적인 상상을 초월한 착취 하에서 농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田家詞>는 농민들의 이러한 울분을 대변한 것이다.

田家詞

農夫의 노래

牛吒吒，田确确，  
 旱塊敲牛蹄趵趵。  
 種得官倉珠顆穀。  
 六十年來兵簇簇，  
 月月食糧車轆轳。  
 一日官軍收海服，  
 驅牛駕車食牛肉。  
 歸來收得牛兩角，  
 重鑄耒犁作斤斲。  
 姑舂婦擔去輸官，  
 輸官不足歸賣屋。  
 願官早勝讎早覆，  
 農死有兒牛有犢，  
 誓不遣官軍糧不足。

소는 헉헉거리고, 밭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마른 흙덩어리가 소 발굽을 타닥타닥 치네.  
 稅金으로 내야 할 眞珠 같은 알곡을 과중하네.  
 6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戰爭을 하니,  
 달마다 軍糧米 나르는 수레가 줄지어 다니네.  
 어찌다 官軍이 國境地域의 땅이라도 되찾으면,  
 군량미를 실어 몰고 간 소도 잡아먹어 버리네.  
 돌아올 때는 겨우 소뿔 두 가지고 돌아와서는,  
 다시 쟁기를 녹여서 가래와 호미를 만들었네.  
 방아 찼고 돌리메어 官廳에 납부하러 갔으나,  
 納付할 量이 모자라서 돌아와 집을 팔게 되니,  
 官軍이 빨리 이겨서 원수를 빨리 갚길 바라네.  
 나에게게는 아들이 있고 소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맹세컨대 官軍에게 보낼 軍糧은 모자라지 않게 하마.

戰禍가 빈번한 中唐 시기에 朝廷이 가혹한 세금과 해마다 내야하는 軍糧米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거둔 곡식을 官府에서 모두 가져갈 뿐만 아니라, 官軍에게 밭을 가는 소마저 빼앗겼다. 官府와 官軍은 잃어버린 땅을 收復한다는 명분으로 백성을 해치는 豺狼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적과는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백성들만 쥐어짜는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詩 중에서 농부는 소를 빼앗겨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나 세금을 혹독하게 받아가는 것은 여전했으니 하는 수 없이 집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소가 죽으면 송아지가 있으니까, 맹세하건데 官軍에게 보낼 軍糧米은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는 마지막 두 句의 反語的 표현에서 질질 끌기만 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 대하여 ‘될 대로 되라’고 自暴自棄하는 농민의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

<織婦詞>는 다른 해보다 일찍 내야하는 絲稅 때문에 織婦들이 새벽부터 비단을 짜야하는 織婦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한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서둘러 비단을 짜야하는 까닭은 “戰爭에서 다친 兵士들을 상처를 싸매고, 공훈을 세운 將軍의 비단 막사를 교체하기(征人戰苦束刀瘡, 主將勳高換羅幕.)” 위해서이다. 이 처럼 戰亂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미쳐 “동녘집의 두 처자는 무늬 넣는 법을 배우느라 白髮이 되어도 시집을 못가는 (東家頭白雙女兒, 爲解挑紋嫁不得.)”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統治者의 사치와 향락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비단을 짜는 아낙들의 청춘을 황폐의 수준에 까지 이르게 한 그 운명의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作家는 비단에 무늬를 넣는 (爲解挑紋) 것을 詩 속에 집어넣어 그 비단이 단순히 兵士들의 상처를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 戰功을 세운 將軍들의 奢侈를 위해서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다.

시인은 이 詩에서 스스로 註를 달아 “내가 荊州에 관리로 있을 때 비단을 짜는 집안에서 늙도록 시집을 못간 노처녀를 보았다. (予掾荊時, 目擊貢綾戶有終老不嫁之女.)” 하여 직접 목격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採珠行> 은 眞珠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眞珠를 채집하는 것을 묘사했다. 詩에서 “萬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겨우 한 알을 얻을 수 있는데, 열 말이나 되는 眞珠로 여자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萬人判死一得珠, 斛量買婢人何在?)”라는 문책과 “올해는 海神이 진주를 모두 캐버려 바다에는 죽은 조개만 있다. (今年採珠由海神。海神採珠盡死, 死盡明珠空海水.)”는 탄식은 皇帝의 사치로 인하여 眞珠의 씨가 말랐다는 것을 海神을 빌어 隱喻的으로 皇帝를 질타하는 소리와 다름없다. 同時代 詩人 柳宗元의 <捕蛇者說>에도 이처럼 가혹한 세금 때문에 목숨을 걸고 毒蛇를 잡아 (吾祖死於是, 吾父死於是。) 세금으로 充當하는 경우가 나온다.

## 2) 罹災民에 대한 동정 - 白居易

封建社會에서 농민은 주요한 착취 대상이었다. 白居易의 ‘惟歌生民病’으로부터 출발한 新樂府는 착취당하는 농민과 邊方에 사는 遺民들의 고통스런 생활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특히 災難을 입은 罹災民들이 二重으로 당하는 압박과 착취에

대해 깊은 동정을 나타내었다.

<杜陵叟>는 小序에 ‘농부의 곤궁함을 위로함 (傷農夫之困也)’이라 하여 농민들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처지를 위로하였다.

杜陵叟

두릉에 사는 할아버지

杜陵叟，杜陵居，  
歲種薄田一頃餘。  
三月無雨早風起，  
麥苗不秀多黃死。  
九月降霜秋早寒，  
禾穗未熟皆青乾。  
長吏明知不申破，  
急斂暴徵求考課。  
典桑賣地納官租，  
明年衣食將何如。  
剝我身上帛，  
奪我口中粟。  
虐人害物即豺狼，  
何必鉤爪鋸牙食人肉。  
不知何人奏皇帝，  
帝心惻隱知人弊。  
白麻紙上書德音，  
京畿盡放今年稅。  
昨日里胥方到門，  
手持敕牒榜鄉村。  
十家租稅九家畢，  
虛受吾君蠲免恩。

杜陵 할아버지, 杜陵 고을에 사시면서,  
서너 말 지기의 척박한 땅을 부쳐 먹는데,  
3월에 가뭄 들고 더운 바람마저 불어와서,  
보리가 패기도 전에 모두 누렇게 말라죽고.  
9월에 서리 내려 추위가 너무 일찍 찾아와,  
벼이삭은 익지 못해 푸른 채로 말라죽었네.  
長吏는 이런 사정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다그쳐 빨리 徵收하여 實績만 올리려 하네.  
땅 팔고 뽕밭 典當잡혀 官家 세금 납부하니,  
내년에 입고 먹을 것 어떻게 장만해야 하나.  
내 몸에 걸친 옷을 벗겨가고,  
내 입에 든 곡식 빼앗아가네.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아 가면 豺狼이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人肉을 먹어야만 豺狼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실정을 皇帝께 알리니,  
황제께서 백성들의 피해를 알고 측은히 여겨.  
白麻紙위에 皇帝의 말씀을 적어 내려 보내니,  
京畿地方에 금년 세금은 모두 減免한다 하네.  
어제서야 고을 衙前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勅書를 손에 들고 와서 榜이라고 내걸었지만.  
열 집에서 아홉 집은 진작 세금 다 내었으니,  
세금 감면해준 임금 은혜 받으나마나 되었네.

전반부에는 杜陵에 사는 노인은 겨우 서너 말 지기의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

어 먹고살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봄에는 가뭄이 든 데다 더운 바람이 불어 보리가 패기도 전에 대부분 누렇게 말라 죽고, 가을엔 서리가 내려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벼이삭은 익지 못해 푸른 채로 말라죽어 수확할 곡식이 없어 농사를 다 망쳤는데도,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上部에 보고하지 않고 매물차게 세금을 징수하여 실적만 올리려고 하고 있는 지방수령의 비정함을 비난하고 있다. 詩 중의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가고, 내 입에 든 음식을 빼앗아 가네. 백성을 확대하고 재물을 강탈해 가면 승냥이와 이리지, 꼭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승냥이와 이리인가” 하는 句節은 농부의 처절한 절규와 통곡을 대변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누가 이러한 사정을 皇帝에게 상소하여<sup>82)</sup> 京畿地方엔 금년세금이 모두 면제라는 勅令이 내려왔는데도 관아에서는 백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림으로 “열 집에 아홉 집은 이미 세금을 다 내었으니, 우리 임금의 면제 은총은 받으나 마나 되었다.”하여 作家는 농부의 입을 빌려 皇帝의 無能과 官吏의 貪功要寵을 비난하고 있다.

<捕蝗>도 <杜陵叟>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메뚜기 災害를 입었는데도 다시 메뚜기를 잡느라고 고달픈 처지를 묘사하였다. 詩人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德宗 興元 年間 兵亂이 지속되어 陰陽이 조화를 잃게 되자, 조화로운 기운이 해독을 입어 메뚜기가 되었다. (興元兵久傷陰陽, 和氣蠱蠹化爲蝗.)” 하여 오랜 兵亂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詩에서 “당시 좁쌀 한말 값이 三百 냥인데, 메뚜기 한 말 잡는 비용도 三百 냥이 드니, 메뚜기를 잡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괜히 굶주린 백성들의 돈과 힘만 二重으로 들게 할 뿐이다. (是時粟斗錢三百, 蝗蟲之價與粟同。捕蝗捕蝗竟何利, 徒使飢人重勞費.)” 하여 지방수령이 메뚜기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罹災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백 마리가 몰려오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天災에 맞서려고 하는가? (一蟲雖死百蟲來, 豈將人力競天災.)” 하고는 ‘魯恭과 太宗의 古事’<sup>83)</sup>를 빌려 “내가 듣기에 옛날에 어진 관리가 善政을 베풀어 메뚜기 떼를

82) 謝思煒撰, 《白居易文集校注》<緣今時早請更減放江淮旱損州縣百姓今年租稅>라는 上奏文에서 재난을 입은 州縣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83) 魯恭: 後漢 사람, 河南 中牟縣의 知事로 있을 때 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웃 縣에는 메뚜기 피해를 입었지만 中牟縣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함.

몰아내니 메뚜기 떼가 모두 마을 밖으로 물러났고, 貞觀 초기 막 王道가 창성하려 할 때 太宗皇帝가 하늘을 보며 메뚜기를 삼켰다. 한 사람이 선행으로 모든 백성이 혜택을 입어, 이 해에 비록 메뚜기 떼가 나타났지만 피해를 안 입었다하더라.’ (我聞古之良吏有善政，以政驅蝗蝗出境。又聞貞觀之初道欲昌，問皇仰天吞一蝗。一人有慶兆民賴，是勢雖蝗不爲害。)” 하여 魯恭을 들어 河南 수령을 질타하고, 太宗의 애민정신을 들어 德宗에게 간언하고 있다.

<縛戎人>에서는 吐蕃에 잡혀 살고 있는 백성의 비통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같은 제목으로 쓰여 진 元稹의 <縛戎人>에서는 공을 세워 은총을 받으려는 邊方將帥의 功名心을 비난하고 있지만, 백거이는 이 詩에서 불쌍한 처지에 놓인 백성을 위로하고 있다. 詩는 먼저 縛戎人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려내고, 다음은 縛戎人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吐蕃에 살고 있는 漢族들의 고난을 진술하고 있다. 詩중에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고향이 涼州인데 大曆 年間に 吐蕃에 몰락하여 그 후 40년을 吐蕃에서 살면서 가죽 옷을 입고 털로 된 허리띠를 두르며 살았다. 오직 설날에만 漢族 복장이 허락되니, 衣冠을 整齊하고 남 몰래 눈물을 흘렸다.’ (自云鄉管本涼原，大曆年中沒落蕃。一落蕃中四十載，遣着皮裘繫毛帶。唯許正朝服漢儀，斂衣整巾潛淚垂。)”고 吐蕃에 살고 있는 漢族들의 서러움을 털어 놓고 있다. 縛戎人은 吐蕃에 있는 처자식도 모르게 삼엄한 吐蕃의 경비를 뚫고 죽을 고생을 하며 黃河를 건너 漢나라 騎兵을 만났지만 도리어 捕虜가 되어 江南땅으로 압송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향 涼州도 가지 못하는데 吐蕃 땅에 처자식만 헛되게 버렸네. 吐蕃에 살적엔 漢나라를 그리다가, 漢나라로 돌아와선 吐蕃 捕虜가 되었구나. 이처럼 돌아온 걸 후회할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한 곳에서 고생함만 못하네. (涼原鄉井不得見，胡地妻兒虛棄捐。沒蕃被囚思漢土，歸漢被劫爲蕃虜。早知如此悔歸來，兩地寧如一處。)”라는 넋두리는 失地 收復을 외면하는 朝廷과 邊方將帥들에 대한 원망이다. 마지막으로 作家는 “예부터 이렇게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어 본 적이 있었는가? 漢나라 마음을 갖고, 漢나라 말을 쓰는데 몸은 오랑캐 취급을 받네. (自古此冤應未有，漢心漢語吐蕃身。)”하여 小序에서

---

太宗：唐太宗 貞觀 年間 2년에 메뚜기 피해가 있었을 때, 太宗이 몸소 메뚜기 한 마리를 삼키고 하늘에 비니 그 피해가 그쳤다고 함.

밝힌 ‘백성들의 곤궁한 처지를 세상에 알린다. (達窮民之情也)’는 것처럼 황제께서 吐蕃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주시길 바라고 있다.

### 3) 羨餘와 宮市<sup>84)</sup>에 대한 비판 - 白居易

中唐 시기는 租稅 제도를 개혁하여 원래 있었던 租·庸·調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差等 부과하는 ‘兩稅法’으로 개정하였지만 貪官汚吏들은 이러한 조세개혁의 기회를 틈타 兩稅 외에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苛斂誅求 하며 중간에서 着服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또한 宮市使들은 민간인의 재물을 약탈해 백성들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재난을 안겨주었다.

<重賦> (一作 <無名稅>)는 지방관리가 정해진 세금 외에 ‘羨餘’란 명목으로 백성들을 잔혹하게 착취하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 重賦

厚地植桑麻，所要濟生民。 生民理布帛，所求活一身。  
身外充征賦，上以奉君親。 國家定兩稅，本意在愛人。  
闕初防其淫，明敕內外臣。 稅外加一物，皆以枉法論。  
奈何歲月久，貪吏得因循。 浚我以求寵，斂索無冬春。  
織絹未成疋，繰絲未盈斤。 里胥迫我納，不許暫逡巡。  
歲暮天地閉，陰風生破村。 夜深烟火盡，霰雪白紛紛。  
幼者形不蔽，老者體無溫。 悲端與寒氣，併入鼻中辛。  
昨日輸殘稅，因窺官庫門。 繒帛如山積，絲絮似雲屯。  
號爲羨餘物，隨月獻至尊。 奪我身上暖，買爾眼前恩。  
進入瓊林庫，歲久化爲塵。

84) 《新唐書》, 卷 58 / 志 第42, 食貨 2》 주비의 난이 평정된 후 황제(德宗)가 재물을 모으려는 생각을 품자 통상적인 세금 외에 진봉이 끊이지 않아, …… 그 명목을 선여라 하였다. …… 이때 환관들을 궁시사로 임명하여 궁에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硃泚既平, 於是帝屬意聚斂, 常賦之外, 進奉不息, …… 名爲「羨餘」。 …… 是時, 宮中取物於市, 以中官爲宮市使。)

重賦 (중복해서 받아가는 세금)

비옥한 땅에 뽕나무와 삼을 심어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하고,  
백성들이 베와 비단을 짜는 것은 내 한 몸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쓰고 남은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임금에게 봉양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兩稅法을 제정한 것은 본래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었다.  
처음에는 過剩 징수를 방지하고자 勅令을 內外 신하에게 알리고,  
규정 외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모두 법령으로 다스린다 하였다.  
어쩌랴 오랜 세월 지나다보니 貪官들이 제 버릇 개 주지 못하여,  
우리를 쥐어짜서 자기 충애를 얻고자 시도 때도 없이 거둬 가네.  
비단은 아직 한 疋도 못 짜고 고추 푼 실은 한 斤도 안 되는데,  
衙前들은 바치라고 재촉하며 잠시라도 지체함을 용납하지 않네.  
歲暮라 하늘과 땅이 맞붙은 듯이 陰冷한 바람 마을에 몰아치고,  
깊은 밤 화로에는 불기도 없는데 하얀 싹눈이 펄펄 흩날리네.  
어린아이는 걸친 옷 하나도 없고 늙은이는 온 몸이 싸늘하구나.  
슬픈 탄식과 함께 찬 기운이 코 속에 들어오니 더욱 고통스럽네.  
어저께 나머지 세금 바치러 가서 관청의 창고 속을 들여다보니,  
비단은 산과 같이 쌓여있고 명주와 솜은 구름처럼 몽쳐 있었네.  
이것들을 剩餘物이란 명목으로 달마다 皇帝에게 바치고 있다네.  
내 몸의 따스함을 빼앗아다가 네 높은 임금 은총 사려고 하네.  
임금님 창고에 들어가 봐야 세월이 오래되면 먼지로 변할 것을.

하여 명목 없는(無名) 세금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황제에게 충애를 받고  
자 하는 지방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紅線毯> 또한 小序에 ‘비단의 낭비를 우려함(憂蠶桑之費也)’이라고 밝힌 것처럼 宮中の 사치와 羨餘를 進奉하는 관리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詩에서는 먼저 紅線毯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이어서 그것을 宮闕 마당에 깔아서 그 위에서 舞姬들이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朝廷의 사치를 비난하고 있다.

詩 중에서 宣州의 織女들이 짠 紅線毯은 최고급품이어서 매년 시월이면 황제

의 使者가 가지러 오는데 (年年十月來宣州) “宣州의 太守는 織女들에게 무늬를 넣어서 짜라고 하면서, 스스로 臣下로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宣城太守加樣織, 自謂爲臣能竭力。)” 이렇게 해서 짠 비단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장정 백 명이나 들어야 들 수 있고, 너무 두꺼워서 말 수도 없다. 마지막 절에는 “宣城太守는 알고 있는가? 한丈 길이의 담요를 짜려면 千兩 실이 쓰인다는 것을, 땅은 추위를 모르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하니, 사람 옷 빼앗아 땅 옷 만드는 짓거리 작작해라. (宣城太守知不知, 一丈毯, 千兩絲。地不知寒人要暖, 少奪人衣作地衣。)”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오직 출세에만 눈이 먼 官吏를 규탄하고 있다.宣城太守와 같이 단지 자기의 출세와 재산을 모으려고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는 지방 관리의 잔혹한 압박 하에서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못에 물을 빼 고기를 잡는 渴澤而漁식 착취는 근본적으로 통치계급의 이익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賣炭翁>은 宦官의 앞잡이가 재물을 약탈해가는 것을 폭로한 작품으로, 中唐 때 민간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宮市’였다.

賣炭翁

賣炭翁,  
伐薪燒炭南山中。  
滿面塵灰烟火色,  
兩鬢蒼蒼十指黑。  
賣炭得錢何所營,  
身上衣裳口中食。  
可憐身上衣正單,  
心憂炭賤願天寒。  
夜來城外一尺雪,  
曉駕炭車輾冰轍。

숯 파는 늙은이

숯 파는 늙은이가,  
남산에서 나무를 베어 숯을 굽는다네.  
얼굴엔 온통 흙먼지와 그을음투성이고,  
귀밑머리 희끗희끗 열손가락 새까마네.  
숯을 팔아 돈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몸에 걸칠 옷하고 먹을 양식 살뿐이라네.  
가련하게 몸에 걸친 옷이라곤 홑옷인데,  
숯 값 떨어질까 날씨 추워지길 기다리네.  
간밤에 城 밖에는 한자 넘게 눈이 내리니.  
새벽에 숯 수레 몰고 빙판길에 고생하네.

牛困人飢日已高,  
市南門外泥中歇。  
翩翩兩騎來是誰,  
黃衣使者白衫兒。  
手把文書口稱敕,  
迴車叱牛牽向北。  
一車炭, 千餘斤,  
宮使驅將惜不得。  
半疋紅紗一丈綾,  
繫向牛頭充炭直。

피곤하고 배도 고프데 해는 벌써 중천이고,  
南門 밖 진창에서 한숨을 돌리려고 하니.  
기세 좋게 말 타고 오는 두 사람은 누구?  
노란옷의 勅使와 흰 옷 입은 시종이라네.  
손에 文書 들고 입으로 勅書라고 하면서,  
수레 돌려 소를 몰아 북쪽으로 끌고 가네.  
수레 가득 실은 숯이 千餘斤이나 되는데,  
勅使에게 빼앗기니 아까워도 할 수 없네.  
반 필의 붉은 명주와 열자의綾羅비단을,  
소머리에 걸어 놓고 숯 값으로 충당하네.

小序에 ‘宮市를 괴로워 함 (苦宮市也)’이라 한 것처럼 ‘宮市’는 當時 宮闕에서 民間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가장 악독한 갈취 방식이다. 원래 宮闕에서 필요한 물품은 官府에서 구매하여 공급하였는데 德宗 貞元 末년에 이르러 宦官이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當時 宮闕에서는 항상 수백 명이나 되는 ‘白望’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변화한 市場으로 파견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만나면 돈을 주지 않거나 주어도 쥐꼬리만큼 주어 빼앗아가니 ‘宮市’는 명목이고 실체는 약탈이다.

《新樂府》는 아니지만 <宿紫閣山北村>이란 詩에서도 환관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30년이 된 나무를 베어가는 만행을 폭로하고 있다.

### 3. 窮兵黷武<sup>85)</sup>

元稹과 白居易는 邊方의 失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과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작품에서 보면 원진은 주로 변방장수들의 공명심을 비난하고 있고, 백거이는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85) 窮兵黷武(窮兵黷武) : 功勳을 탐하여 兵力을 남용함.

### 1) 貪功要寵을 비난함 - 元稹

唐代는 邊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時期여서 朝廷은 軍隊를 거느린 邊方將帥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 安史의 亂이 평정된 후 邊方장수들은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여 자체적으로 군대를 확충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형벌을 집행하는 등 자치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邊功을 세워 賞을 받기 위해서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縛戎人>은 邊方將帥가 무고한 백성을 잡아다가 捕虜로 충당하여, 이것으로 貪功要寵 하려는 염치없는 행위를 폭로하였다. 그 목적은 단지 이것을 빌미로 朝廷에 공을 세워 寵愛를 받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 중에서 “얼굴이 붉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잡아드리다 보니, 半은 邊方に 사는 백성이고, 半은 匈奴族의 일반 사람이다. (但逢頰面即捉來, 半是蕃人半戎羯.)” 라고 밝힌 것처럼 軍隊를 보유하고도 영토를 收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짓으로 공을 세웠다고 보고하는 부패현상은 詩의 마지막에 “國境에 10만 兵士들을 주둔시켜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고먹으면서 어찌하여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는가? 해마다 달랑 두 세 사람의 捕虜를 잡는 것은 精衛<sup>86)</sup>가 갈대를 물어다 발해를 메우려는 것이다. (緣邊飽餒十萬衆, 何不齊驅一時發。年年但捉兩三人, 精衛銜蘆塞溟渤。)” 하여 邊方장수의 功名心을 비난하고 있다.

<蠻子朝>는 西川節度使 韋臯가 雲南 六詔의 少數民族과 수교를 맺은 것에 대하여 “오랑캐들이 험준한 길을 건너온 것은, 朝廷에 感化되어 귀순한 것이 아니라 吐蕃의 약탈이 두려워서 (鳥道繩橋來款附, 非因慕化因危悚.)” 온 것인데, “益州大將 韋臯는 汧隴이 잠시 안정된 때에 節度使가 되어 오랑캐를 진압하는데 아무런 공적이 없음에도 오랑캐가 歸順하는 행운을 얻어 皇帝의 恩寵을 얻었다. (益州大將韋令公, 頃實遭時定汧隴。自居劇鎮無他績, 幸得蠻來固恩寵。)”하여 邊方將帥들의 功名心을 비난하고 있고, “오랑캐를 위해 길을 내어 朝廷에 알현케 하

86) 精衛 : 炎帝의 딸이 동해에 빠져 변한 전설상의 새. 갈대를 물어다 東海를 메우려 했음. 즉 헛수고를 이룸.

니 오고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皇帝께서 친히 왕립하시고 四方에서 축하하니 朝廷의 官吏들은 하는 일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爲蠻開道引蠻朝，接蠻送蠻常繼踵。天子臨軒四方賀，朝廷無事唯端拱。)”하여 朝廷이 無事安逸한 태도와 외교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비난하고 있다.

<西涼伎>에서는 邊方將帥들의 온 종일 춤추고 노래하며 酒池肉林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방탕함을 질책하고 있다. 陳寅恪은 이 시의 創作背景에 대하여

“安史의 亂 이후 吐蕃이 ‘河湟’을 무단으로 점거한 이래부터 憲宗 元和 年間に 이르기까지 長安의 君臣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계획이 있었지만, 邊方將帥들은 빼앗긴 땅을 찾으려는 意志가 조금도 없었다.……元稹은 어릴 때 西北 邊方인 ‘鳳翔’에 살아서 邊方將帥들이 먹고 노는데 빠져서 河湟이 오래도록 수령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어서 그때를 回想하며 이 詩를 지었다.”

(自安史亂後，吐蕃盜據河湟以來，迄於憲宗元和之世，長安君臣雖有收復失地之計圖，而邊鎮將領終無經略舊疆之志意。……微之少居西北邊鎮之鳳翔，殆親見或聞知邊將之安樂嬉遊，而坐視河湟之長期淪沒，故追憶感慨，賦成此篇。) 87)

고 하고 있어 元稹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건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詩 중에서는 지난 날 涼州에는 인구가 많아 시장이 번화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高官과 貴人들의 연회에는 늘 山海珍味와 百戲와 같은 雜技 등 노래와 춤으로 太平聖代를 노래했는데, 오늘날 涼州는 이미 황량한 땅으로 변한 것에 대하여 詩人은 잃어버린 국토를 修復하여 나라의 치욕을 설욕할 것을 바라고 있다.

<夫遠征>은 ‘趙나라 將帥 趙括’의 古事<sup>88)</sup>를 引用해서 전쟁을 통해 功을 세우

87) 陳寅恪《元白詩箋證稿》，北京，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2002，6，重印，p 233, 234.

88) 성백효 역주, 《通鑑節要》1, 전통문화연구회, 2006. p.178. “趙括은 어릴 때부터 兵法을 배워 天下에 자신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趙奢와 兵法에 대해 말할 적에 趙奢가 대답하지 못했으나,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자, 趙括의 어머니가 그 까닭은 묻자 ‘戰場은 죽는 곳인데 趙括이 쉽게 말하니, 趙나라에서 趙括을 將帥로 삼는다면 趙나라 軍隊를 패망시킬 자는 반드시 趙括이다.’ 하였다. 趙括이 出征하게 되자 그 어머니가 王에게 글을 올려 趙括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王이 ‘내

러는 將帥들을 비난하고 있다.

夫遠征

남편이 遠征을 가네

趙卒四十萬，  
盡爲坑中鬼。

趙나라 兵士 40만 명이,  
모두 땅속 鬼神 되었네.

趙王未信趙母言，  
猶點新兵坑填死。  
填死之兵兵氣塞，  
秦強趙破括敵起。  
括雖全命起尙輕，  
何況牽肘之人牽不已。

趙王은 趙括 모친의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新兵을 뽑아 구덩이에 묻혀 죽게 하였네.  
묻혀 죽은 兵士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秦國이 趙國을 치려하니 趙括이 白起를 상대하네.  
趙括이 全權을 행사하나 白起는 도리어 무시하고,  
하물며 守備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攻擊을 하고 있네.

坑中之鬼妻在營，  
鬢麻戴經鵝雁鳴。  
送夫之婦又行哭，  
哭聲送死非送行。  
夫遠征，  
遠征不必戍長城，  
出門便不知死生。

구덩이에 묻혀 죽은 兵士의 夫人이 軍營에 있어,  
머리를 풀고 巾帶를 둘러 大聲痛哭을 하는구나.  
남편을 戰場에 보내는 婦人이 쫓아가며 우는데,  
울음소리가 行喪소리지 離別하는 노래가 아니네.  
남편이 遠征을 가네,  
遠征은 長城을 지키는 데에는 필요 없는 것이네,  
문을 나서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趙나라 장수 趙括이 秦나라 장수 白起의 유인책에 넘어가 城을 지키지 않고 出征하였다가 白起에게 패하여 趙나라 兵士 40만 명이 산채로 묻힘을 당한 歷史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領土 확장을 위한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 “남편이 遠征을 가는구나, 長城을 지키는 데 무슨 遠征이 필요하냐? 문을 나서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라는 句節은 詩人이 ‘爲政者들은 국토 방위를 위해서 軍隊를 동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功名心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을 보내는 부인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이 句節은 마치 부인의 울부짖음이 옆에서 들리는 듯하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울분

가 이미 결정했다.’라고 말하였다.”(趙括自少時學兵法，以天下莫能當。嘗與其父奢言兵事，奢不能難，然不謂善。括母問其故，奢曰兵死地也，而括易言之，趙若將括，破趙軍者必括也。及括將行，其母上書，言括不可使，王曰 吾已決矣。)

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처럼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목숨을 보잘것없이 여겨 영토를 확장하려고 수천수만의 부부를 갈라놓는다. 出征이 비록 生離別이지만 실제로는 死別이나 마찬가지로 무수한 가정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은 諷刺의 의미가 매우 선명하다.

## 2) 戰爭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함 - 白居易

戰爭은 交戰하는 양쪽 백성들에게 참혹한 재난을 가져다준다. 安史의 亂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朝廷은 外國의 힘을 빌리거나, 歸順한 敵將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亂이 평정된 후에 외국군대가 철수하지 않거나 영토를 침공하여 점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변방장수 또한 그 땅을 수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西涼伎>에서는 天寶 이래 西北 邊方을 점령당했지만 수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서 獅子舞나 감상하고 있는 변방장수들을 규탄하고 있다.

시인은 詩 중에서 “天寶年間 安史의 亂의 일어난 후부터 吐蕃이 밤낮으로 서쪽 邊方에 침범하여 涼州가 함락된 지 40년이 되었으며, 河隴 地域 70리가 敵의 수중에 들어갔다. (自從天寶兵戈起, 犬戎日夜吞西鄙。涼州陷來四十年, 河隴侵將七十里。)”라고 제기한 후 이런 처지가 되어도 兵權을 장악한 변방장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수복하여 국가의 수치를 설욕하고, 오랑캐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할 궁리는 하지 않고 “멀쩡하게 邊境에 10만이나 되는 병사를 주둔 시켜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한가로이 지내면서, 遺民들은 애끊으며 涼州에 사는 데도 장수와 병졸은 그저 쳐다만 볼 뿐 수복할 생각을 않는다. (緣邊空屯十萬卒, 飽食溫衣閑過日。遺民腸斷在涼州, 將卒相看無意收。)”하며 遺民들을 대변하여 변방장수들을 질타하고, 마지막 節의 “명청하게 잃어버린 땅도 찾아오지 못하는 주체에 西涼의 獅子춤을 오락거리로 삼는 것이 말이 되냐. (縱無智力未能收, 忍取西涼弄爲戲。)”고 변방장수들이 荒淫無道함을 꾸짖고 있다.

<新豐折臂翁>에서는 戰爭을 싫어하는 백성들의 정서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

다.

新豊折臂翁

新豊老翁八十八，  
頭鬢眉鬚皆似雪。  
玄孫扶向店前行，  
左臂憑肩右臂折。

.....

無何天寶大徵兵，  
戶有三丁點一丁。  
點得驅將何處去，  
五月萬里雲南行。

.....

是時翁年二十四，  
兵部牒中有名字。  
夜深不敢使人知，  
偷將大石鎚折臂。

.....

至今風雨陰寒夜，  
直到天明痛不眠。  
痛不眠，  
終不悔。

.....

君不聞，  
開元宰相宋開府。  
不賞邊攻防黷武。  
又君聞，  
天寶宰相楊國忠，  
欲求恩幸立邊功，  
邊功未立生人怨。

新豊고을에 팔 잘린 할아버지

新豊고을에 사는 여든여덟 살 할아버지  
머리부터 눈썹 수염 모두 눈처럼 희네.  
高孫子가 부축하여 店鋪 앞으로 가는데,  
왼팔은 괜찮은 데 오른 팔은 잘려있네.

.....

얼마 후 天寶 年間에 대규모 徵兵으로,  
집에 장정 셋 있으면 한명을 徵集했네.  
徵集하여 끌고 간 곳 어딘가 하였더니,  
五月에 萬 里 떨어진 雲南으로 간다네.

.....

그 때 이 늙은이가 스물네 살이었는데,  
兵部의 징집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있어.  
깊은 밤중에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큰 돌로 내려쳐서 한쪽 팔을 부러뜨렸지.

.....

지금도 비바람 치고 으스스한 밤이 되면,  
통증으로 잠 못 이뤘 낯밤을 지새운다오.  
통증 때문에 잠은 못 자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오.

.....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開元 年間에 재상을 역임한 宋璟 開府가,  
邊功을 포상하지 않아 黷武를 막은 것을.  
또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天寶 年間에 재상으로 재직했던 楊國忠이,  
邊方의 功을 세워 은총을 얻고자 하였으나,  
功도 못 세우고 사람들의 원망만 샀던 걸.

天寶 年間に 실제로 있었던 楊國忠의 ‘南詔遠征’을 생동감 있고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 徵集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팔을 잘라버린 노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가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徵集을 기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小序에서 밝힌 “邊方の 功을 경계함 (戒邊功也)” 과 같이 이 戰爭이 邊方の 功을 세우기 위한 영토 확장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의롭지 못한 戰爭이 백성들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4. 外來音樂의 盛行

“唐 高祖는 胡族을 地盤으로 하는 武川鎮 軍閥 출신이었으므로 異民族을 배척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太宗과 世子는 胡風을 즐기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의 王들도 대외정책상 異民族과의 호우 · 유대관계를 견지하기 위하여 超民族的 大同主義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安史의 亂의 발발하여 異民族이 漢族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자 華夷觀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로써 民族主義的 自각이 생겨나게 되었다.”<sup>89)</sup>

##### 1) 叛亂의 원인 - 元稹

元稹의 《和李校書新題樂府》 12首에는 音樂과 歌舞에 관한 詩가 12首 중에서 7篇이나 될 정도로 많이 있다. 이 詩들은 대부분 元稹의 ‘華夷觀’을 나타낸 것으로 전통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래문화 수용이 결과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불러왔다는 논리로서 실제로는 정치를論하기 위한 작품이다.

<法曲>에서는 《雅樂》을 노래하고, 胡樂을 배척하는 것을 통하여 엄격하게 華夷를 구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周 · 秦 이래 통치 집단의 專爲物인 《雅樂》은 唐代에 이르러 쇠미해져 宗廟祭禮에만 쓰였고, 실제로 실용음악에서 전통

89) 임효변 : 고정아 《백거이 서사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61에서 재인용

적인 것은 法曲이었다. 그 특징은 音色은 청아하고, 樂器는 漢民族 전통악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관념을 지니고 있는 士大夫들은 法曲을 추종하였으나, 宮廷과 민간음악에서 法曲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했다. 이와는 달리 외래 음악은 法曲과는 다르게 새롭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단숨에 法曲의 우아함과 음울한 풍격을 쓸어버리고 朝廷과 민간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원진은 詩 중에서 “오랑캐가 쳐들어 온 후부터 咸陽과 洛陽에 모피 옷에서 나는 비린내가 진동하였다. (自從胡騎起燃塵, 毛毳腥羶滿咸洛).”고 비난하며 외래 음악의 성행을 自國民을 登用하지 않고 胡族을 등용한다는 것에 비유하여 변방에 外族이 등용을 반대하고 있고, 반란의 원인이 외래음악의 성행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胡旋女>에서는 皇帝가 聲色之娛에 빠진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고, 또한 當時 朝廷 奸臣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보고 있다. “天寶 年間이 끝나갈 무렵 오랑캐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춤을 잘 추는 胡旋女를 皇帝께 獻上하였다. (天寶欲末胡欲亂, 胡人獻女能胡旋.)”하여 오랑캐가 반란을 목적으로 舞姬를 보낸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무희를 보낸 까닭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무희의 모습은 내가 전해줄 수 있다. (胡旋之意世莫知, 胡旋之容我能傳.)”한 후에 胡旋女가 화려한 춤으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것을 묘사하고, 이어서 “奸臣들이 이것을 알고는 計略을 바꿔, 皇帝의 마음을 홀리게 하고 눈을 아찔하게 했다. (佞臣聞此心計廻, 惑亂君心君眼眩.)”하여 胡旋女의 춤에 모두들 넋이 빠졌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胡旋女의 모습뿐만 아니라 胡旋女를 보낸 목적도 아울러 말하고 있고, 옆에서 부추기는 奸臣들을 질타하고 있다.

<立部伎>도 宮中 演奏者들의 序列(立部伎 · 坐部伎)을 빌려 邊方의 용인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唐玄宗은 음악을 몹시 좋아하여 외래음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로 받아드렸지만 《雅樂》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주자들의 자리 배열에서 胡樂을 연주하는 자를 上席에 앉혀서 연주하게 하였고 樂器도 대부분 龜茲와 西涼 등 少數民族 악기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 序列은 서서 연주하는 立部伎가 되어 《大定樂》 등 華夏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즉 연주 실력이 가장 뒤떨어진 연주자들에게 《雅樂》을 연주하게 한 것

이다. 이전 秦王(太宗)의 《破陣樂》을 연주할 때에는 皇帝도 玉座에서 내려오고, 大臣들도 무두 일어서서 공손하게 들었는데 오늘날 형편없는 수준의 樂士들이 연주를 하다 보니 “太常이 雅樂을 宮中에 준비를 하면 公演이 끝나기도 전에 官吏들이 꾸벅꾸벅 조는 (太常雅樂備宮懸, 九奏未終百寮惰.)” 등 대단한 멸시를 받았다. 이처럼 “法曲과 胡音이 갑자기 섞이다 보니 이듬해 시월에 燕에서 도적놈들이 쳐들어왔다. (法曲胡音忽相和, 明年十月燕寇來.)”고 하고는 이렇게 된 원인이 “雅樂을 연주하는 樂士를 모두 돌팔이로 뽑아서 그런 것이지, 어찌 先王이 음악을 잘못 만든 것이냐 (工師盡取聾昧人, 豈是先王作之過.)”하여 음악을 빌려 皇帝가 邊方의 將帥들을 異民族으로 기용한 용인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 2) 전통음악의 쇠퇴 - 白居易

白居易는 元稹의 정치주장과는 달리 외래음악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전통음악이 천대를 받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立部伎>는 小序에서 ‘雅樂이 쇠퇴함을 풍자한 것이다. (刺雅樂之替也),하여 전통 음악인 雅樂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立部伎

입부기

.....

.....

立部賤, 坐部貴。

입부기는 천하고 좌부기는 귀하다.

坐部退爲立部伎,

좌부기에서 물러나면 입부기가 되어

擊鼓吹笛和雜戲。

북치고 피리 불며 잡희와 어울린다.

立部又退何所任,

입부기에서 물러나면 무엇을 맡을까?

始就樂懸操雅音。

그제야 비로소 아음을 연주하게 하네.

.....

.....

圓丘后土郊祀時,

교외에서 천지신명께 제사 지낼 적에,

言將此樂感神祇,

이 음악으로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欲望鳳來百獸舞,

봉황 오고 짐승들의 춤추기를 바라는,

何異北轅將適楚。

북쪽을 향해 남으로 가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白居易는 이 詩에 註를 달아

太常이 坐部伎에서 음악성이 떨어지는 자를 골라 立部伎로 보내고, 또 立部伎에서 실력이 모자란 자를 골라 雅樂部로 보냈다.

(太常選坐部伎無性識者, 退入立部伎。又選立部伎絕無性識者, 退入雅樂部。)<sup>90)</sup>

라고 하여 가장 연주 실력이 떨어지는 樂士가 雅音を 연주한다고 하고 있다.

詩 중에서는 먼저 입부기는 천하고 (立部賤), 좌부기는 귀하다 (坐部貴)하여 입부기와 좌부기의 지위를 말하고는 이어서 입부기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樂士들로 하여금 郊外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릴 때 雅音を 연주하게 한다고 하여 雅音이 쇠퇴함이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樂士의 수준에 있다고 하고 있다.

<五絃>에서는 먼저 趙璧의 신들린 연주를 묘사하고는 “앉아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넋이 나간 듯하고, 길 가던 나그네도 이 소릴 들으면 멈추어서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坐客聞此聲, 形神若無主。行客聞此聲, 駐足不能舉。)” 할 정도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가난한 집의 ‘五絃琴’<sup>91)</sup>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날마다 먼지만 쌓인다. (所以綠窗琴, 日日生塵土。)”고 하여 外來 音樂은 크게 환영을 받고, 中國의 전통적인 雅音은 푸대접을 받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 第2절 主題의 獨創性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에는 題材와 主題가 거의 공통되지만 독창적인 주제도

90) 《新樂府》<立部伎>

91) 【五絃琴】: 옛 악기 이름 (古樂器名),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 趙璧이 연주한 五絃은 외래 악기로 五絃琴과는 다른 樂器임.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작품 數量<sup>92)</sup>의 차이도 있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 1. 정치적 失意 - 元稹

元稹은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여러 차례 좌천을 당했는데 江陵部 土曹參軍으로 좌천된 후 약 10년 정도 여러 곳에서 폼적생활을 할 때 지은 《樂府古題》 19首에 자기의 벼슬살이가 순탄하지 않음을 슬회한 작품이 몇 편 있다.

<苦樂相倚曲>은 班婕妤가 皇帝의 寵愛를 잃은 歷史的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班婕妤(班姬)는 漢나라 皇帝 成帝때 入宮하여 皇帝의 寵愛를 받아 ‘婕妤’가 되었다가, 후에 趙飛燕이 寵愛를 받게 되자 讒訴 당하였다. 長信宮으로 물러나 太后를 모시게 되자 부채에 자신의 處地를 寄託하는 《怨歌行》을 지어 자기가 皇帝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운명을 부채에 비유하였다. 여기에서 作家는 자기가 貶謫당한 사건을 班婕妤의 古事를 빌려 말하고 있다. “班姬는 눈물을 거두고 下女를 껴안으며 ‘나도 전에 혼자 寵愛를 받으려고 수많은 妃嬪들을 물리친 적이 있구나.’ (班姬收淚抱妾身, 我曾排嬪無限人.)”하는 마지막 節은 元稹 스스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말려든 적이 있다는 自己反省이다. <夢上天> 末句에도 “만약 그대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向使無君終不悟.)”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벼슬살이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出門行>은 ‘華氏之璧’의 古事를 가지고 지금은 때를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황제에게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작가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詩 중에서 兄은 荊山 꼭대기에서 玉을 얻고, 동생은 깊은 바다에서 眞珠를 얻어 둘 다 王宮에 獻上하였으나 眞珠를 바친 동생은 성대한 환영을 받았지만 玉을 바친 兄은 ‘刑刑’<sup>93)</sup>을 받는다. 그러나 兄은 “親戚들 발걸음도 드물고, 마누라도 떠나버렸

92) 元稹의 新樂府 작품 數는 《新題樂府》 12首와 《樂府古題》 19首를 합쳐 31首이고, 白居易의 新樂府 작품 數는 《秦中吟》 10首 와 《新樂府》 50首를 합쳐 60首이다.

93) 刑刑 (刑刑) : 발꿈치를 도려내는 형벌.

다. (門戶親戚疏, 匡牀妻妾棄。)할 정도로 집안이 風飛電散 되었지만 “기대하는 바를 마음속에 새기니 잘린 밭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다. (銘心有所待, 視足無所愧.)”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니 ‘어느 날 임금이 옥돌의 가치를 알아주어(一朝龍醒悟)’ 玉을 갖고 다듬으니 마침내 代代로 내려오는 天下의 보물이 되었다는 古事를 빌려 自身の 處地가 지금은 비록 讒訴를 받아 困窮하게 되었지만 언젠가 황제가 一朝龍醒悟하여 다시 長安으로 불러 주기만 하면 나라의 寶物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抱負를 詩를 빌어 말하고 있다.

## 2. 高位層의 奢侈와 享樂 - 白居易

安史의 亂 後 朝廷의 질서가 무너져 當權者의 弄奸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宦官과 高位層들의 사치와 방탕한 생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인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對比를 통하여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輕肥>에서는 宦官이 跋扈하는 추악한 현상을 만 천하에 폭로했다.

輕肥

가벼운 갖옷과 살찐 말

意氣驕滿路,  
鞍馬光照塵。  
借問何爲者,  
人稱是內臣。  
朱紱皆大夫,  
紫綬或將軍。  
誇赴軍中宴,  
走馬去如雲。  
罇罍溢九醞,  
水陸羅八珍。  
果擘洞庭橘,  
鱠切天池鱗。  
食飽心自若,

意氣揚揚한 교만함이 길가에 넘쳐나고,  
말안장은 번쩍번쩍해 먼지를 다 비추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사람들 말로는 모두들 宦官이라고 하네.  
붉은 인끈을 맨 사람들은 모두들 大夫요,  
자주색 인끈 맨 사람은 아마 장군이겠쥬.  
으스대며 軍營에서 열리는 宴會에 가는데,  
달리는 말이 구름처럼 날리면서 물려가네.  
술 단지와 술병엔 온 나라 술이 넘쳐나고,  
山海珍味 珍羞盛饌 골고루 陳列 되어있네.  
과일은 洞庭湖에서 나는 감귤을 갈라놓고,  
膾는 天池에서 나는 생선을 저며 놓았네.  
배부르게 먹으니 마음은 더욱 느긋해지고,

酒酣氣益振。	술이 거나해지자 氣勢는 더욱 浩蕩해진다.
是歲江南旱，	올해에도 江南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衢州人食人。	衢州에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데.

唐代 ‘監軍’은 대부분 宦官을 기용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內臣戎帥’이다. 이처럼 하찮은 內侍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大權을 잡게 되자 자만하여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호사를 누렸다. 마지막 節에 ‘是歲江南旱，衢州食人食.’하는 민중들의 처참한 형편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관료와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도달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歌舞>에서도 <輕肥>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계층 간 대립을 묘사하고 있다.

作家는 詩 중에서 長安城에 큰 눈이 내렸는데도 “貴族들은 風雪에 興趣가 있고, 富豪들은 추위나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 오직 호화로운 邸宅을 짓고, 享樂만을 추구하는 (貴有風雪興，富無飢寒憂。所營唯第宅，所務在追遊。) ” 豪族들과 法官들이 모여 “낮부터 시작된 향락이 깊은 밤이 되어도 그칠 줄 모르니, 어찌 閹鄉 監獄에서 일어 죽은 罪囚가 있는 줄을 어찌 알겠는가? (日中爲一樂，夜半不能休。豈知閹鄉獄，中有凍死囚。) ” 하여 閹鄉 監獄에선 날씨가 추워 罪囚가 일어 죽었는데도 눈이 내리니 흥취가 돋는다고 밤새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법관들을 비난하고 있다.

당시 대단위 土木工事を 벌여 호화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상류층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오래된 관습이다.

<傷宅>과 <杏爲梁>은 모두 호화주택을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먼저 <傷宅>의 “어느 甲富가 으리으리한 집을 새로 지었는지 붉은 대문을 큰길가 쪽으로 내어 우람한 집채들이 빗살처럼 늘어섰고, 높은 담장을 밖으로 둘러쳐 놓았네. 겹겹이 솟은 예닐곱 채의 높은 집, 우람한 대들보가 줄지어 이어졌네. 한 채에 백만금이 넘는 집에서는 멩게멍게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네. (誰家起甲第，朱門大道邊。豐屋中櫛比，高牆外迴環。累累六七堂，棟宇相連延。一堂費百萬，鬱鬱起青

烟。)” 와 <杏爲梁>의 “살구나무를 대들보로 쓰고, 계수나무를 기둥으로 썼으니, 누구 집인가 하니 재상 李開府의 邸宅이었노라. 푸른 섬들 붉은 처마의 칠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지난 해 죽으니 금년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 왔네. 담장을 더욱 높이고 대문을 더 크게 했으니, 이걸 또 누구 집인가 했더니 盧將軍이 邸宅을 새로 꾸미네. 흰 담과 밝은 벽의 광채가 아직 바래기도 전에, 또다시 관아에서 몰수하여 딴 사람에게 하사했노라. (杏爲梁, 桂爲柱, 何人堂室李開府。碧砌紅軒色未乾, 去年身沒今移主。高其牆, 大其門, 誰家第宅盧將軍。素泥朱板光未滅, 今歲官收別賜人。)”에 나오는 으리으리하고 호화롭게 지어진 집들은 그들이 백성들의 고향을 짜낸 결과이다. 비록 그 집 주인은 영원히 그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傷宅>의 “馬씨 일가도 몰락하여 지금 奉誠園이 된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不見馬家宅, 今作奉誠園。)”와 <杏爲梁>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馬씨 저택이 아직 그대로 있어도 대문에 奉誠園이란 문패가 붙여 있는 것을. (君不見, 馬家宅尚猶存, 宅門題作奉誠園。)” 이란 이 두 句節은 貪官의 최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杏爲梁>에서 말하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魏徵의 옛집이 딴 사람에게 넘어갔어도, 皇帝가 명을 내려 나라에서 사서 五代孫에게 넘겨준 것을. (君不見魏家宅屬他人, 詔贖賜還五代孫。)”이란 구절은 사필귀정을 강조하는 詩人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白居易는 옛일을 오늘의 거울로 삼는 ‘引古鑑今’하여, <隋堤柳>에서 隋煬帝가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無償勞役に 종사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업이 파괴되어 멸망에 이른 역사적 사실로써 통치자를 훈계했다. “나라 財政이 이때 바닥이 났는데 龍船 안의 웃음과 노래 소리 언제나 끝이 날까? 朝廷은 방탕하고 백성은 곤궁하니 國力은 오래 가질 못한다. 宗廟社稷의 위태로움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隋煬帝는 스스로 隋나라가 영원할 거라 하였지만 어찌 알았겠는가? 隋煬帝 후손이 鄴公에 봉해질 거라는 걸. 龍船이 아직 彭城閣을 벗어나기도 전에 唐나라 의병이 이미 長安城을 점령했네. (海內財力此時竭, 舟中歌笑何日休。上荒下困勢不久, 宗社之危如綴旒。煬天子, 自言福祚長無窮, 豈知皇子封鄴公。龍舟未過彭城閣, 義旗已入長安宮。)” 이러한 ‘居安思危’적 정치적 안목은 객관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 3. 朝廷官吏의 職務遺棄 - 白居易

<司天臺>에서는 朝廷의 신하가 實情을 숨기고 皇帝를 欺瞞하여 좋은 소식만 알리고 나쁜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을 古代 天文臺의 기능을 빌려 현재 집권 당국을 諷刺했다. 詩 중에는 먼저 “司天臺는 위로는 하늘의 조화를 살피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는 곳 (司天臺, 仰觀俯察天人際.)”이라 하여 司天臺의 기능을 설명한 후, 결미에는 나라에 우환이 닥칠 징조가 보였는데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明光殿으로 달려가서 단지 太平聖代를 상징하는 구름과 별이 나타났다고만 上奏한다. 하늘의 현상과 시세의 변화가 모두 이러한데 구중궁궐에 계신 天子만 모르고 있다. 모를 바에는 司天臺의 높이를 百尺이나 높게 하여 어디에 쓸 것인가? (明朝趨入明光殿, 唯奏慶雲壽星見。天文時變兩如斯, 九重天子不得知。不得知, 安用臺高百尺爲.)” 하여 직분을 다 하지 않는 신하들을 질책하고, 또 그러한 신하들에게 높은 벼슬(高百尺)을 준 皇帝를 諷刺하고 있다.

<紫毫筆>도 <司天臺>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국록을 받아먹는 조정 중신들을 비난하고 있다. “신하들의 간사함을 사실대로 皇帝에게 上奏하고, 皇帝의 모든 言行을 끝이끝대로 기록해야하는 (臣有奸邪正衙奏, 君有動言直筆書.)” 諫官과 史官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諫官은 공연히 신하의 失儀나 탄핵하려고 하지 말고, 史官은 헛되이 皇帝의 詔書만 기록하려고 하지 말라. (慎勿空將彈失儀, 慎勿空將錄制詞.)” 하여 當時 諫官들은 皇帝에게 드리는 신하들의 直言을 무례하다고 하여 탄핵하고, 皇帝의 모든 言行을 기록해야 하는 史官이 황제의 詔書만을 기록하는 것은 신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小序에 “직책의 본분을 잊음을 경계한다. (戒失職也)” 하였다.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는 그 題材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조정, 농가, 織婦, 궁녀, 악기 등 일일이 詩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없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生動感이 있으면서도 그 中心主題는 朝廷의 부패를 폭로하여 통렬하게 비판

하는 것과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탄식하고, 사회풍조가 날로 나빠지는 것을  
규탄하는 諷諭의 뜻이 뚜렷하다.

## 第 5장 結 論

元稹과 白居易의 詩學觀은 전통적 儒家 시학관과 일맥상통한다. 儒家는 줄 곳 詩歌의 정치작용과 사회의의를 주장하였는데 元稹과 白居易도 詩歌로써 中唐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新樂府 이론 강령을 제창하고, 창작하여 詩歌의 效率性을 중시하였다. 두 시인은 《策林, 69·採詩》에서 “정치가 잘 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고,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고, 피곤하면 쉬게 할 수 있다. (政之廢者修之, 闕者補之。人之憂者樂之, 勞者逸之.)”며 詩歌로써 補察時政할 수 있고 洩導人情할 수 있다는 儒學의 전통적인 詩學觀을 주장하였다.

2章에서 安史의 亂 후 藩鎮들의 割據와 잦은 전쟁 그리고 宦官들의 跋扈와 가혹한 세금 등 사회 각 방면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있어, 뜻있는 사람들은 政治改革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唐王朝가 中興하기를 바랐으나 황제의 무능과 환관들의 반발로 인해서 정치개혁은 좌절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각종 종교와 사상이 허용되어 講唱體의 변문(變文)과 전기소설 같은 俗文學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속문학의 발달은 문장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元稹과 白居易가 주도한 신악부운동과 韓愈와 柳宗元이 주도한 古文運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元稹과 白居易의 생애를 보면 元稹은 어린 시절 가난하여 書堂에 다닐 형편이 못되었으나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서 《詩經》과 《書經》 등 학문을 배웠고, 白居易 또한 ‘헛바닥이 헐고, 팔꿈치에 굳살이 박힐 정도 (以至於口舌成瘡, 手肘成胝)’<sup>94</sup>로 공부하였다. 두 시인은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관리가 되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벼슬길에 올라 諫官과 詩人으로서 上奏文과 詩歌를 통하여 국가가 중흥하기를 바랐지만 도리어 當權者들의 미움을 사 좌천당하였다. 이때부터 두 시인의 삶이 크게 갈려 白居易는 江州司馬로 좌천된 다음 더 이상 《新樂府》와 같은 諷諭詩를 짓지 않았고 그 후에도 地方의 閒職을 자청하여 獨善其身的 삶을 살았지만 원진은 도리어 江陵府 士曹參軍로 좌천된 후에 《樂府古

94) 謝思焯撰, 《白居易文集校注》〈與元九書〉

題》19首를 지어 통치계층의 부패를 폭로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동정하며 窮亦濟毫釐하는 삶을 고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章에서 當時 詩壇의 虛美文風을 배척하는 新樂府運動의 제창자인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 특징을 살펴보면 元稹과 白居易는 詩歌의 功利性을 강조하여 詩歌로써 무능한 朝廷을 비판하며 사육에만 빠져있는 當權者들의 부패를 폭로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하층 민중들의 처지를 위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일치하지만 표현기법에서는 두 시인의 주장이 약간 다를 수 있다. 元稹은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목을 정하는데도 ‘옛 제목을 따라 쓰고, 창화를 되풀이 하는(沿襲古題, 唱和重複。)’ 형식을 버리고, ‘비록 고제를 사용했으나 고의가 전혀 없게(雖用古題, 全無故意。)’ 쓰거나, ‘자못 고의가 있는 듯해도 전부 새로운 글(頗同古意, 全創新詞。)’로 詩를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인 ‘寄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稍存寄興)’고 하여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강조한 반면 白居易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詩歌의 예술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와 직설적인 표현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詩歌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元稹은 <上陽白髮人>과 <連昌宮詞>, 白居易는 <買花>와 <牡丹芳>의 비교를 통하여 서로가 상대에게 영향을 끼쳐 樂府詩體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4章에서는 作品에서 나타나는 두 시인의 같은 주제에서 서로 다른 議論과 독창적인 주제를 分析하였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元稹은 나라가 번창하려면 간신을 척결하고 현자를 등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白居易는 황제의 수신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민중들의 고난에 대해서 元稹은 가혹한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을 위로하고 있고, 白居易는 더 나아가 羨餘와 宮市의 弊端도 폭로하고 있어 당시 사회 모순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훈을 얻기 위해서 군사력을 남용하는 窮兵黷武에서는 元稹은 공을 세워 은총을 받으려는 변방장수들의 功名心을 비난하고 있고, 白居易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민중들의 피해를 반영하고 있어, 元稹은 장수들의 貪功要寵을 반대하는 반면 白居易는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음악의 성행에 대해서 元稹은 음악을 변방을 지키는 장수에 비유하여 외래음악의 유입은 곧 外族을 등용하는 조정의 姑息之計여서 반란의 근원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고, 白居易는 외래음악은 성행하는 반면 雅樂이 쇠퇴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독창적인 주제에서는 元稹은 정치적 좌절을 당했을 때 다시 捲土重來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白居易는 고위층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여념이 없는 것을 비난하고 있으며 또한 朝廷 관리들의 직무를 다 하지도 않으면서 俸祿만 축내고 있다고 糾彈하고 있다.

元稹과 白居易의 新樂府는 中唐의 元和年間이라는 매우 짧은 時期에 쓰여진 詩이지만 中國文學史에 커다란 足跡을 남겨 後代 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參考文獻

### 原典 및 註釋類

- 喻岳衡點校,《白居易集》,湖南,岳麓書社出版社,1992.
- 謝思焯撰,《白居易詩集校注》全六卷,北京,中華書局,2009.
- 謝思焯校注,《白居易文集校注》全四卷,北京,中華書局,2011.
- 冀勤點校,《元稹集》上·下,北京,中華書局,2010.

### 中文書籍 單行本

- 陳寅恪,《元白詩箋證稿》,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01.
- 鍾優民,《新樂府詩派研究》,沈陽,遼寧大學出版社,1997.
- 遠行霏,《中國文學史綱要》,北京,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1986.
- 靳亞州編著,《白居易與新樂府》,吉林,吉林文史出版社,2009.
- 吳偉斌,《元稹評傳》,鄭州,河南人民出版社,2008.
- 胡適,《白話文學史》,北京,團結出版社,2005.
- 張煜,《新樂府辭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部社,2009.

### 國內書籍 單行本

- 安東林譯註,《莊子》,玄岩社,1998.
- 金在乘,《白樂天詩研究》,明文堂,1991.
- 金喆洙譯註,《白居易의 新樂府 50수와 秦中吟 10수, 중당사회를 비추다》,白山出版社,2007.
- 張基槿譯著,《白樂天》,明文堂,2002.
- 李炳漢·李永朱 譯解,《唐詩選》,서울大學校出版部,1998.
- 成百曉 譯註,《通鑑節要》,傳統文化研究會,2006.

## 論文類

### 中文論文

- 卞孝萱,《白居易與新樂府運動 上·下》, 文史知識, 1985.
- 張煜,《萬斯同〈新樂府〉對 白居易〈新樂府〉的因革》, 首都師範大學校報, 1983.
- 尚永亮,《中唐樂府諷諭詩之價值評判與元白張王之優劣異同》, 北京大學校報, 2010.
- 陳書泉·胡腊英《近年來對元稹和白居易的評價問題討論綜述》, 文史知識, 1968.
- 吳偉斌,《元稹與宦官》, 蘇州大學報, 1986.
- 吳偉斌,《關於元稹通州任內的幾個問題》, 貴州文史叢刊 1987.
- 吳偉斌,《元稹評價縱覽》, 復旦大學報, 1988.
- 吳偉斌,《元稹與長慶元年科試案》, 中州學刊, 1989.
- 蘇者聰,《白居易的新樂府不能一概否定》, 南充師院學報, 1986.
- 朱繼琢,《談唐代新樂府的幾個問題》, 廣東民族學院學報, 1988.
- 王毅,《從〈新樂府序〉到〈序洛詩〉》, 洛陽師專學報, 1988.
- 張艷梅·石蓬勃,《淺談樂府詩的發展流變》, 文學自由談, 2010.
- 單書安,《元白新樂府與漢樂府聯繫的再認識》, 陝西師大學報, 1987.
- 陳秀芳,《論白居易〈新樂府〉題材來源的多樣性》, 聊城大學學報, 2010.
- 智振章,《〈連昌宮詞〉與元稹》, 洛陽師專學報, 1986.
- 林繼中,《白居易自我調節機制的實現》, 山東大學學報, 1988.
- 王錫九,《關於元白文學成就和新樂府運動的爭鳴》, 語文導報, 1986.

### 國內論文

- 金卿東,《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6.
- 鄭鎬俊,《元稹과 그 樂府詩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98.
- 高眞雅,《白居易 敘事詩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95.
- 張幸柳,《元白의 新樂府이론 및 작품분석》, 慶熙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8.

金美賢,《元稹의 社會詩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5.

李恩姪,《中唐 寓言詩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0.

申英愛,《白居易 新樂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0.

申英愛,《白居易 新樂府의 分類와 內容에 대하여》, 淑明女子大學校, 1982.

李浚植,《白居易論》, 韓國中文學會, 1996.

李浚植,《杜甫·白居易詩 리얼리즘의 形成과 그 樣態》, 成均館大學校, 1989.

金龍雲,《白居易 寫實認識의 定向과 性格》, 東亞大學校, 1992.

柳炳禮,《白居易 詩語의 特色》, 韓國中語中文學會, 1983.